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주시 삼양동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홍 순 옥

2016년 8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삼양동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용 복

홍 순 옥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8月

홍순옥의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8月

The Effect of Personal Relevance and
Residents' Recognition toward Regional Cultural
Resources on

- Focused on the Residents of the Historical Sites in samyang dong Jeju si -

Hong Soon Og

(Supervised by professor Yong-Bok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2016. 8.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문화관광자원의 개념 및 유형과 특성	7
1. 문화관광자원의 개념	7
2. 문화관광자원의 유형과 특성	9
3. 문화유적지의 개념	12
제2절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 인식과 태도	21
1. 관광영향의 인식의 개념	21
2. 지역주민의 인식과 선행연구	22
3. 지역주민의 태도	30
4. 관광영향인식과 지역주민 태도 선행연구	37
제3절 조사대상지 일반 현황	40
1. 조사대상지 개관	40
2. 조사대상지 문화자원 분포현황	42
제 3 장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53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53
1. 연구모형	53
2. 가설설정	54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55
제2절 연구의 조사 설계	56
1. 조사대상지 선정 배경	56

제3절 설문지 구성과 분석방법	56
1. 설문지 구성	56
2. 표본 추출	59
3. 분석 방법	60
제 4 장 실증분석	62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2
제2절 요인별 기술통계량	63
1. 경제적 요인에 대한 통계량	63
2.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통계량	64
3. 환경적 요인에 대한 통계량	66
4. 개인적 연관성 요인에 대한 통계량	67
5. 태도 요인에 대한 통계량	67
제3절 탐색적 요인분석	69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	69
2.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72
3.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72
제4절 매개효과 검증과 가설검증	73
1. 매개효과 검증	73
2. 가설 H1 검증	75
3. 가설 H2 검증	77
4.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79
5. 문화유적지와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 두 집단	79
6. 문화유적지와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 세 집단	80
7. 문화유적지와 거주지 간 거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	80

제5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1
1. 분석결과의 요약	81
2. 분석결과의 시사점	84
제 5 장 결 론	88
1. 연구 결과의 의의	8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90
참고문헌	92
부 록	98
ABSTRACT	102

표 목차

〈표 2-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개념	9
〈표 2-2〉 문화관광자원의 유형	10
〈표 2-3〉 문화관광자원의 구분	11
〈표 2-4〉 문화관광지 유형 분류	14
〈표 2-5〉 문화유적지 선행연구	20
〈표 2-6〉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25
〈표 2-7〉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27
〈표 2-8〉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30
〈표 2-9〉 태도의 특성	33
〈표 2-10〉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37
〈표 2-11〉 제주시 삼양동 유형별 문화재 특징	43
〈표 3-1〉 설문지의 구성	57
〈표 3-2〉 관광 영향인식에 대한 측정 항목	58
〈표 3-3〉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 측정항목	59
〈표 3-4〉 지역주민의 태도 측정항목	59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2
〈표 4-2〉 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량	63
〈표 4-3〉 사회·문화적 요인의 기술통계량	64~65
〈표 4-4〉 환경적 요인의 기술통계량	66
〈표 4-5〉 개인적 연관성 요인의 기술통계량	67
〈표 4-6〉 태도 요인의 기술통계량	68
〈표 4-7〉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주민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71
〈표 4-8〉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72
〈표 4-9〉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73
〈표 4-10〉 관광영향인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74
〈표 4-11〉 가설 H1a 검증	75

〈표 4-12〉 가설 H1b 검증	76
〈표 4-13〉 가설 H1c 검증	76
〈표 4-14〉 가설 H1d 검증	77
〈표 4-15〉 가설 H2 검증	78
〈표 4-16〉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두 집단)	79
〈표 4-17〉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세 집단)	80
〈표 4-18〉 거주지 간 거리에 따른 관광영향인식 분산분석	81

그림 목차

[그림 2-1]	전곡리 선사박물관 전경	18
[그림 2-2]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
[그림 2-3]	지역주민의 관광인식의 관광 태도	39
[그림 2-4]	지역주민의 관광태도	40
[그림 2-5]	제주시 삼양동 문화재 배치도 분포현황	42
[그림 2-6]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 전경 및 세부	44
[그림 2-7]	제주시 삼양동 불탑사 오층석탑 세부	45
[그림 2-8]	제주시 삼양동 지식묘 전경	48
[그림 2-9]	제주시 삼양동 초가집 전경 및 세부	49
[그림 2-10]	제주시 삼양동 환해장성 전경 및 세부	50
[그림 2-11]	도련동 굴나무군 전경 및 세부	50
[그림 2-12]	삼양해수욕장 전경 및 세부	51
[그림 2-13]	제주시 삼양동 용천수 전경 및 세부	52
[그림 3-1]	이론적 연구모형	55
[그림 4-1]	수정된 연구모형	79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문화관광을 하나의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네스코(1996)에 개최된 ‘문화, 관광, 발전: 21세기를 위한 중요 이슈들(Culture, tourism, development: crucial issue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문화가 관광으로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여경진 · 주영민, 2016). 문화의 보존이 관광의 발전이라는 테마로 21세기에는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해 문화관광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제안하기 시작했다(이석호, 2011).

특히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는 국가 간 문화적 이해와 폭을 넓히고 문화교류의 기회 및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향수 및 다양한 문화적 정취와 경험을 토대로 한 기반 둔 유·무형의 유적을 소재한 곳이다. 즉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문화유산을 관광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오익근, 2010).

또한 소비성향이 강한 현대사회에서는 타 지역의 이질적 문화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양성을 가진 문화교류를 통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홍보와 전통문화 체험 할 수 기회 제공(Hsiaoa & Chuangb, 2015)과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승담, 2000).

1990년대 이후 문화관광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지에만 원형보존에만 집중하다보니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조사는 소홀하게 진행되었다(조명환 · 양봉석, 2004).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실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관광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이다(조명환 · 양봉석, 2004).

반면에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용성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요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도 작용하는 한편(최병길 · 김태보, 2009). 지역 고유문화를 재평가 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체성 및 유대감을 강화시키는데 지역주민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다(최승담, 2000). 부정적 영향은 지역사회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만들기도 하고(이재곤 · 홍정화 · 송기현, 2011),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개발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따른 지역주민 대상의 연구는 중요한 요소로 본다. 특히 관광개발의 이루어지는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직업 및 생활의(박석희, 2000)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다양한 혜택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식과 태도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조광익 · 김남조, 2002; 이후석, 2004; 양성수 외, 2009).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김은석 · 정광중 · 류현중, 2010).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관광지로써 지역사회는 관광을 위한 총체적 환경에서 보는 관광객의 경험, 만족, 재방문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지역사회는 관광활동이 일어나는 관광지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관광객의 욕구에 대한 만족을 감소시키고 환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강신겸, 2001). 셋째, 지역사회는 내생적, 자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독자성을 상실하는 한편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방향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은 관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평가하고 여러 분야에 지역주민들을 포함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창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사업목적이 지속가능하게끔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과 발전단계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어야 한다(김성일 · 박석희, 2001; 문순덕, 2015).

관광자원개발계획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간창출과 국민과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유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생활(Well-being)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선진국은 유명관광지를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일수록,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각

종의 자연 및 문화자원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매력을 끌기 때문이다. 즉 지역 내 자연적·사회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민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하면서도 쾌적하고 물리적 환경조성을 함으로서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장성수, 2010).

따라서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있으면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최용복·부창산, 2007),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선행연구에서 보면 문화관광지 지역주민의 지각과 관광 태도에 두고 있다. 관광지원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관광지 형태를 고려한 지역주민의 관광태도를 이해하고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지각과 태도의 두 개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행동의 연속선상에 놓여 관광자원과 있는 지각(관광영향지각) 및 태도(관광태도),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보다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고동완, 2011; 박용순·김석혁, 200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화자원인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적 연관성과 인관관계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경기도 연천군의 대표축제를 보면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인 지역 문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실질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있다. 즉,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후속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김병섭, 2012; 제14회 연천리 전곡리 구석기축제 결과보고서, 2006). 전곡리 문화유적과 유사한 제주시 삼양동지역에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인 문화유적지가 고루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삼양동은 검은 모래축제로서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문화유적지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유적지를 문화관광자원화 개발 및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해서 삼양동 지역주민들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을 태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진행할 사업계획이나 문화관광개발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이란 나라 또는 지역의 문화를 보호, 보존하기 위한 개념이다(여경진·주영민, 2016). 현재는 관광지과 지역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려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의 한 지역 공간에서 오랫동안 축적되고 형성된 보편적 생활양식을 표출하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서 지역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성, 고유성, 보편성 등을 반영하고 활용하는 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쇄신을 수단으로 지역의 경쟁 우위적이며,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과 다양한 관광객들을 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용복·부창산·김민철, 2012).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영향인식이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 및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을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이러한 구분은 인위적이며 중복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다는 점과 관광산업이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도 있지만 문화관광개발을 지원하고 관광 축제에 참여 한다는 것이다(Teng-Yuan Hsiao & Chuangb,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삼양동지역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선사유적지, 보물 제1187호인 불탑사 5층 석탑 등 문화유적지와 검은 모래 찹질로 유명한 검은 모래해변, 원당봉과 올레18코스 개설과 함께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면서 관광지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긍정적인 효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있다. 특히 여러 요인들 중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영향인식이 개인적 연관성과 관련하여 인식이 차이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식과 문화유

적지에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문화유적지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다(김성진 · 강신겸 · 홍장원, 2011).

따라서 삼양동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개인적 연관성을 문화유적지와 거주지간 거리, 거주연한 및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된 개인적 연관성이 대한 매개효과를 두어 영향관계를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영향인식과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 한다. 둘째,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과의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파악하는 한편 이러한 인식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있는지 특히 태도와 원인 변수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수의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결과를 문화유적지와 관련된 앞으로 향후 문화재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삼양동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과 여러 방면에 복합적인 개발가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문헌적 방법(documentary study)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차 수집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empirical study)인 설문지법(questionnaire survey)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삼양동 5개의 법정동(삼양1동, 삼양2동, 삼양3동, 도련1동, 도련2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지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삼양동 지역주민 60부 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걸쳐 약 5일 정도 간 실시했

다. 본 조사는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의 추출은 삼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전체 5장으로 구성했으며 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에 기술했고 2장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3장에서 연구 설계와 가설을 설정했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은 4장에 기술했고, 이에 따른 논의와 시사점을 5장에 제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for Window 22.0(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관계와 구성요들 간의 전체적인 영향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추출된 표본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추출된 표본자료를 통해 문항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설문 문항의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검증 결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후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했으며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각각 실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문화관광자원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1. 문화관광자원의 개념

문화란 구성원들이 특정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형성된 사고 및 행동양식을 모여서 사회구성원들이 학습, 계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특정 지역 내 구성원들의 사고와 가치체계를 형성되는 기준으로 사회의 응집력과 소속감을 결집시키고 다른 사회의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김덕기, 2003). 문화는 자연과 대립되는 개념을 가진 인간이 자연 상태가 아닌 일정한 목적과 생활이상을 실현시키려는 활동과정, 생활방식과 내용으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이라 것이다(김세천 외, 2001).

이러한 문화란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생존방식을 의미하는 살아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서태양, 2002). 본래 국가 집단은 독특한 생활방식을 갖추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신념, 가치, 관습 등이 총체라고 규정짓기도 한다. 문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인류가 갖고 있는 과거 그리고 현재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변화 할 수 있다. 다른 생활양식의 바탕으로 해석할 때 관광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대 인간에 대한 행동원리를 결정하는 한편 우리 삶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서적인 문화라고 한다(양봉석, 2006; 이선희 · 전주형, 1996).

따라서 관광의 본질은 문화행동과 문화접촉이며 문화란 인간의 갖고 있는 사고와 환경의 만들어 낸 소산으로서 의식주를 포함한 문학, 미술과 연극, 조각, 음악 등을 예술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하다고 본다(노기창, 2010).

문화관광이란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해에 대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학문기관 또는 정책 입안자들은 문화관광시장의 구성요소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시장의 길로 성급하게만 제시해 왔다. 문화관광의 개념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문화' 와 '관광' 이라는 두 요소를 이루어져 왔으며 문화관광이라는 용어와 다루는 범위에 따

라서 혼선이 따르기도 한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관광은 하나의 거대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각 나라 정부에서는 관광을 통해 소득증대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정책 수립에 따른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대량관광으로 인하여 문화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력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장미경, 2005). 도시인들도 노동으로 힘든 자아상실감과 문화관련 휴식 결핍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출현을 갈구해왔다. 그 자원이 다름이 아닌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본다.

최근까지 문화와 관광에 대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져왔다. 문화관광 목적의 대한 관광객 수는 적고, 여행하는 동안 문화시설에 대한 관광소비에 사용되는 것은 지역주민이 제공되는 욕구에 반해 문화적인 제도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지역주민들은 문화상품 개발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나 생산에 대해서 반드시 주된 일자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제도들은 방문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으며, 관광대상을 여가자원들과 더불어 활발히 관광객 유치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각 나라에서는 문화 관광자원 개발 정도에 따라 관광선진국으로 성장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에 대해서 문화적 동기를 부여하거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다고 해서 관광이라고만 말 할 수 없다. 다만 활동내용 면에서 '문화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보는 관광' 차원에서 적극적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이 진정한 문화관광이라는 것이다(이정규, 1999). 따라서 문화관광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광자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족문화 유산으로 보존가치와 관광매력을 가져야 한다. 즉 민족문화의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보존할 만한 가치 문화로 예술적, 학술적인 관광매력을 가진 관광객의 욕구충족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문화관광자원은 학자들에 의해서 분류기준을 문화시설, 교육시설, 사회시설을 갖춘 사회적 관광자원에 포함시킨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극장 등 문화관광자원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대학, 호텔 등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광자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박물관 또는 현대적 문화시설(미술관·문화회관·극장·음악관)도 문화관광자원의 범주에 속하나 민족문화유산에 소속되어 있을 때 문화유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문화관광자원이 관광 가치로 보는 예술성, 학술성, 종교성 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문화관광자원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의해서 문화의 특성을 지닌 민족의 예술적, 창조성과 비교·감상·비판 등 대상에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것이다(김미옥, 2003).

문화관광자원의 개념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객들에게 욕구를 충족과 매력을 줄 수 있는 자원이라 한다(김미옥, 2003). 문화관광은 일부 학자나 단체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이 '학습(Learning)'와 '유산(Heritage)'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도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과정에 근거로 한 유희 및 휴식과 같은 동기가 아니고 문화적 및 비문화적 유무형의 대상을 관찰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적 성향의 관광이라고 한다(장혜원, 2013),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다음의 <표 2-1> 같다.

<표 2-1> 문화관광자원의 개념

예술성	민족문화가 지니고 있는 독창성, 청자의 예술성, 금속공예의 대한 우수성·정밀성·정교성과 고전무용의 갖고 색채성과 유연성, 의상성, 회화가 갖고 있는 독창성, 건축미의 대한 안정된 자연성 등
종교성	사찰에서 느끼는 경건함, 불교의 신비성, 석탑의 예배성 등
유용성	문화재에 대한 모형제작, 축제 및 민속놀이 출현 등
학문성	학문성에는 고건축사, 도예미술사와 금관연구, 불상, 석탑양식사가 있고 민속학, 문화인류학, 고고학, 사학등 있다. 그 외 문화사, 문화재관리학, 불교학과 회화사와 미학, 복식사 등

자료 : 김미옥(2003), 선행연구 토대로 재인용

2. 문화관광자원의 유형과 특성

1) 문화관광자원의 유형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의는 전통문화자원 또는 문화재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문화관광을 구성하는 자원을 보면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시풍속과 음악, 무용 외 종교, 언어,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 무형적 제반현상으로 구성하는 인적요인과 인간의 비영리적 활동의 결과물인 각종의 문화재인 지정관광지, 유원지, 공원,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등의 구조물, 시설물, 음식물, 의상 등에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유형은 다음의 <표 2-2> 같다.

〈표 2-2〉 문화관광자원의 유형

유형	적요
유적관광	과거의 향수를 지닌 이에 기반을 둔 경험을 토대로 둔 유·무형 유적을 소재한 곳.
예술관광	미술, 조각, 연극, 무용 기타 등 인간표현을 노력의 창조적 형태를 갖는 경험.
교육관광	특정분야를 갖고 있는 배움의 목적에 대해 충족과 경험 위주로 한 간접 및 직접체험..
종족생활체험관광	타문화의 교류를 통해 인간과 실제 접촉을 통한 타민족의 생활체험.

자료: 김미옥(2003) 재인용

2) 문화관광자원의 특성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재 속 재발견 또는 재창조되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생활의 결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즉, 문화관광자원이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인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인간 활동에 대해서 문화적 욕구를 갖고 있는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기에 역사적, 교육적, 체험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간의 제약성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공간의 제약은 관광객이 문화관광자원이 있는 장소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관광산업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관광자원의 효용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다(김미애, 2001).

이러한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본질적으로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동안 문화혼합 현상이 가장 먼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관광에 의해서 현 주민들이 실 생활에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문화의 원형을 잃을 수 있고 노출될 환경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문화의 원형에 대한 훼손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의 접촉으로 문화의 상호 이해와 자기 문화의 우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한편 국제 이해와 상호 교류에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전고필, 1997).

문화에 대한 관광자원은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첫째, 민족문화에 대한 유산으로 가치가 뛰어난 자원인 유형의 문화적 소산을 갖고 있

는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지닌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보면 건축 구조물과 전적, 서적, 고문서 등 더불어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포함한 유형문화재라고 한다. 둘째,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가진 역사상, 예술성 가치가 갖고 있는 자원인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을 무형문화재라 한다. 셋째, 패총고분과 성터, 궁궐터와 가마터 등이 있고 그 외 유물포함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적지로는 역사상, 기념물, 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적 관광자원에 포함한다. 그 외 동물은 서식지나 번식지, 되래지를 식물로 자생지를 포함한다. 넷째, 민속자료는 의식주와 생업 그리고 신앙과 연중행사에 관한 풍속 및 관습과 이에 해당하는 의복과 가구, 가옥 등의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김경호 · 고승익, 2003).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경우에 해당지역에 해당하는 주민통합, 정체성 확보, 관광객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이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편 지역개발수단으로서 문화관광을 활성화 방안으로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하면서 주민이나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일상의 탈출로 볼 수 있는 관광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큰 자본이 들이지 않고 지역경제의 수단으로서 장점을 갖는다고 한다(이진희, 2006). 문화적 관광자원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로 구분하는데 이에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구분은 다음의 <표 2-3> 같다.

〈표 2-3〉 문화관광자원의 구분

구분	적요
유형문화재	민족문화의 유산을 가진 가치가 뛰어난 자원으로 유형의 문화적 소산을 갖고 있는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서 건축 구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무형문화재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예술성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기념물	기념물로는 패총고분과, 성터, 궁궐터 및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이 있으며 사적지로는 역사상, 기념물,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문화적 관광자원에 포함한다. 여기에서 동물은 서식지나 번식지, 도래지를 식물로 자생지를 포함
민속자료	민속자료인 의식주나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해당되는 의복과 가구, 가옥 등이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한다는 것

자료 : 제주관광대학 관광특성화사업단(2008), 『제주관광자원론』 재인용

3. 문화유적지의 개념

1) 문화유적지의 개념

문화유적지이라 함은 역사가 깊고 유명한 건물 또는 큰 사변과 전적지 등 있던 장소로 문화유적지인 고전지가 있던 곳(ruins), 그리고 패총(貝塚)과 고분 등과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 곳(remains), 선현과 고인들이 남긴 영지(領地) (inherited land)등으로 구분된다.

문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물질적, 정신적, 제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적은 원래 선인들이 남기고 간 재보(財寶), 가옥(假屋), 토지(土地)와 화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널리 문화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문화유적 또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기나라의 문화유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1962년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공포를 함에 따라. 그 후 문화유적, 문화유산은 문화재속에 포괄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김홍운, 2005)

문화재란 유형·무형의 문화로서 민족이 남긴 역사와 학술, 예술, 국민생활 등의 문화가치가 큰 것 또는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라고 한다는 것이다.

선조들이 남기고 간 문화적 유산은 우리의 문화재가 되며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화들이 서로 연관을 맺고 생산된 문화재는 국제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문화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취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고적을 사적(史籍)으로 개칭하여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신설하게 되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와 지방 행정관청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라는 것이다. 또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이외는 향토문화 보존이 필요성을 가질 때 지정된다(최태현, 2003).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를 포함한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방 지정문화재는 유형·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시도에는 지방문화재 위원회, 지방의 유형문화재의 유물과 지방기념물인 유적을 분류, 지정하는 한편 지방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도 지정, 보존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적은 지하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례(常例)이나 지상에 일부가 나타날 수도 있으

며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중에 잠긴 것도 있으며 분묘와 같이 처음부터 지하에 매장되거나 지상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토사, 화산재 등이 쌓여서 지하에 묻히는 것도 있다.

2). 문화유적지의 종류

문화유적지의 종류를 살펴보면 동굴, 패총, 유물포함층과 주거지, 거석기념물, 암벽예술공지와 사원지, 공방지(工房地), 취락지(聚落地), 도성지(都城地), 그리고 도로, 교량, 수도, 구거(溝渠), 전적지 등이 다종다양하며 포괄적이다. 그 외 전통, 예술, 음악과 기예(技藝), 습관, 제도 및 민속 문화재 등이 유동성이 내포하고 있다.

3) 문화유적지에 대한 유형 및 분류

문화유적지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점을 두고 민속 문화관광지와 대중 관광지로 구분 할 수 있다. 고고학적유적과 박물관, 전통 민속마을과 왕궁, 옛 성터 등 연관된 민속 문화관광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시회, 뮤지컬, 연극, 영화감상, 라디오, TV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대중문화관광지로 분류한다(손수진, 2008).

또한 문화관광지속에는 문화유적관광지, 민속예술관광지, 역사 교육관광지, 전통생활 체험 관광지, 종교생활관광지, 종교관광지, 현대문화시설관광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홍숙희, 2003;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2000; 이정규, 1999). 문화유적관광은 유·무형의 문화유적을 관광하면서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적 자긍심의 높이기 위한 관광이다. 국외 연구자들은 문화관광지의 유형을 분류보다는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고고학유적지, 박물관을 비롯하여 성, 궁전, 역사적이며, 유명하고 유래가 깊은 건축물과, 옛 성터, 그리고 도시예술 조각물과 축제, 이벤트 등이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구성요인을 제시하고 있다(Richard, 1995).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문화관광지는 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지리적 장소로서 문화관광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연구자들은 문화관광지에 대한 분류법이 국가와 민족마다 다른 문화를 대해서 영유하고 있다. 특히 문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분류법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 국내 연구자의 선행 연구자들이 정리한 연구를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양봉석, 2006).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내 연구자들의 바탕으로 한 분류법에 의해서 선조들이 민족의 정체성과 삶의 발자취를 발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과

가치가 인정 될 때 유형·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및 기념물 등은 지정되지 않지만 문화적 동기를 것으로 관광객들에 매력을 가진 문화자원을 포함한 관광지를 정의하고자 한다(양봉석, 2006). 선행연구자들의 의해 분류된 유형은 문화관광지에 대한 유형 분류는 다음의 <표 2-4> 와 같다.

〈표 2-4〉 문화관광지 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
Sofield & Li(1998)	문화관광지 용인으로 역사, 문화, 유적지와 기념물, 역사적 사건의 장소, 전통적인 경치, 예술 전통적 생활양식을 포함
Forbarth, Prentice 및 Guerin(1997)	자연적, 문화적, 건물유적지 등
McIntosh & Goldner(1986)	민속 문화관광지와 대중문화관광지
Richards(2001)	고고학적 유적지, 박물관, 성, 궁전 역사적이고 유명한 건축물, 옛 성터, 도시, 예술조각물, 축제, 이벤트 등이 시간과 교육성 기준 이분법적 기준으로 분류함.
Prentice(1993)	문화유적지, 자연유적지, 풍경유적지, 건축물유적지
홍수희(2003)	문화유적관광지, 민속예술관광지, 전통생활 체험관광지, 종교생활관광지, 종교관광지, 현대문화시설관광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2000)	문화유적관광지, 민속예술관광지, 역사 교육관광지, 전통생활 체험관광지, 종교생활관광지, 종교관광지, 현대문화시설관광지

자료 : 제주관광대학 관광특성화사업단(2008), 『제주관광자원론』, 재인용

4) 문화유적지 문화관광자원화로 활용한 방안

(1) 문화재 활용의 개념

문화재는 국민의 문화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재를 재창조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문화재의 활용이라고 한다.(오세탁, 2005; 김병섭, 2012) 과거에는 문화재의 대한 활용은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의 영향력이 증폭되면서 문화재의 활용을 문화·관광산업 및

문화재향유권(文化財享有權) 측면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¹⁾.

또한 산업사회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문화재가 더 이상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나 장애요인으로 지역보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의 가진 중추적 핵심으로 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문화재청, 2012). 문화재의 보존 측면에서도 문화재의 훼손 보다는 활용이 오히려 적극적인 보존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문화재의 활용은 보존에 영향이 없는 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오세탁, 2005). 멕시코총회(1999) 개최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국제문화유산헌정'을 채택 후 헌장에서 보면 문화재(문화유산) 활용(관광)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 이 헌장에서 보면 문화재 활용의 긍정적 측면에서는 '문화유산이 가지는 경제적 속성을 이용한 자금 조성이 가능하고 사회교육과 정책반영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적 속성에서 보면 결국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게 한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과오 및 부실하게 운영되는 관광과 연계되는 개발에 대한 문화유산은 물리적인 성격과 완전성, 중요한 특성들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관계는 이와 같이 따라 보완적인 관계와 갈등적인 관계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최종덕, 2004; 김병섭, 2012).

활용이란 본래 그것이 갖고 있는 능력, 기능을 잘 사용하는 행위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기본적인 대상물이나 능력이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닌 능력을 지속가능하게끔 잘 살려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 등이 가치와 기능과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문화재청, 2007).

(2) 문화재의 활용

문화재에 대한 활용정책은 문화재의 '공개(公開)를 원칙으로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1) 문화재향유권이란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즉, '국민의 공유재산으로서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생활이익으로서 삼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문화재향유권은 아직까지 학문상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일본에서 1974년 이바유적 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오세탁, 2005:pp.268-270)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으로 활용정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²⁾. 현재는 그 동안 문화재 공개의 연장선에서 주로 교육적·문화적 자원으로만 활용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문화재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인 자원으로 재인식되면서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경제적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공한 지역사례도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유산교육, 문화유산 관광, 문화기술과 문화산업,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방안으로 다양화·융합화 등의 5개 분야로 구성하여 제안하고 있는 문화재 활용정책과 직접 관련된 분야는 문화유산 관광이라는 것이다(김병섭, 2012)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도 ‘문화유산 관광’을 문화유산(문화재)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관광에 대해서 관광이 잘 되기 위해서 문화재를 원형 보존에 대한 노력과 문화재가 자리하고 지역마을을 잘 가꾸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홍재, 2007).

문화유산에 대한 현대적 가치 방안으로는 문화유산 활용기반 구축, 궁궐의 핵심 관광자원화, 지역이 특성이 있는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문화콘텐츠 및 관광 상품개발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람환경과 개선, 그리고 문화유산 전시기능 강화,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와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문화유산 홍보 강화, 등이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

현안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유형별 문화재 보존관리와 특성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 및 인센티브 전략이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재 원형 보존과 국민사유재산권 보호권에 대한 이해관계, 호혜적인 해결 방안 마련도 교착상태에 놓여 있기도 한다.

이에 따른 문화재 관련해서 용적률 거래제 도입, 현상변경 허가 기준의 탄력적인 도입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 및 관 협력 체계를 내실화도 중요하고 국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인 방안과 대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와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활용방안이 요구된다(문화재청, 2012).

(3) 문화유적지 문화관광자원화 활용한 사례연구

문화관광에 대한 인식은 국내외 행정여건의 변화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등재로

2)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30조에서는 지정문화재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문화재에 대한 ‘공개’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삶이 질이 점점 나아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매력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유적지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로 넓어지고 문화에 대한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인프라의 구축 및 관광마케팅 전략의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자원화가 된다는 것이다(전명수, 2006).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전을 치중하던 방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양동 선사유적지와 유사한 전곡리 구석기유적은 문화유적지를 잘 활용한 성공 사례지역으로 보고 있다(김병섭, 2011)³⁾. 선행 연구를 토대로 사례연구(case study)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경기도 북부 지역 연천군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이다. 이 유적지는 총면적 (777,791m²)로 문화재(지정구역)로 지정되었고 전곡읍과 연결된 한탄강과 동쪽의 전곡리 지역과 그리고 서쪽에 있는 고능리 지역으로 나누어진 곳에 전곡리 528-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1979년에 제1차 발굴조사가 시작으로 그 해에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고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면서 197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8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결과 출토유물의 8,500여점의 확인되었다⁴⁾. 전곡리 선사유적을 본 연구에 사례연구를 체계적으로 나열한 이유를 앞서 설명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이란 문화재의 특성상 지방정부와 문화재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된 지역의 '면'단위라는 점과 큰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사적이라 하면 규모와 상징성을 가진 특정상 다른 종류의 문화재보다 지역에 대한 '장소성'(placeness)⁵⁾을 형성하는 문화자원으로 활용이 가치가 높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여 '고릉이'와 '미릉이'를 군의 캐리터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⁶⁾.

셋째, 사적이라는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이해관계자들은 중요 행위자가 되어 문화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하였다. 넷째, 전곡리 선사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지 않

3) 문화재의 '활용'이라 함은 국민의 문화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재의 이용을 말한다.p.40

4) 전곡리 선사박물관, <http://www.jgpm.or.kr/>

5) 장소자산(place asset) 한 장소가 지니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긍정적인 요소, 즉 장소의 매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개발하였을 때 매력적으로 판매 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을 가리킨다(주정남, 2005)

6) 연천군. <http://www.iyc21.net/>

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연천군이 활성화 정책으로 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재정책이 꾸준하게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 문화재 지정구역인 보존정책(토지매입, 유적공원 조성,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문화재 주변지역 보존정책(역사문화 환경 조성,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 문화재와 연계된 지역 축제를 활용정책 일환으로 (연천 전곡리 구석기 개체되면서 하나의 관광축제로 이어가고 있다(김병섭, 2011: 제14호 연천리 전곡리 구석기축제, 2006). 이와 같이 전곡리는 지역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잘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 지방정부, 이해관계 등 서로간의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면서 문화재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에서 더 나아가 대표적 구석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곡리 박물관 전경은 [그림 2-1] 과 같다.

[그림 2-1] 전곡리 선사박물관 전경



전곡리 선사박물관, <http://www.jgpm.or.kr/>

한상우(2009)에 따르면 '문화재에 인식과 암각화의 보존'에서 문화재란 민족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통시대적 민족공유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암각화에 대해서 문화재를 자원으로 하는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암각화의 보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문화재의 복원 및 과학적 처치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전명숙(2005)에 따르면 경주와 고도는 역사적인 고도(古都)로 보기 때문에 문화유산 관광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은 문화유적지로서의 관광매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적지로서 관광자원화를 살펴보면 고유성과 역사성, 주변 환경에 따른 진정성 및 종교성과 예술성으로 구성된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인프라의 구축, 관광마케팅 전략이 조화를 가진 관광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두 도시를 보면 독특한 이미지와 경관을 가진 독특한 분위기가 맞는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정책과 관광자원 유적지의 원형보존이 형성되고 전통숙박공간과 전통음식, 쇼핑자원의 개발이 어울린 문화유적지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적지로서 관광자원화는 문화유산의 성격상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관광객이 다양한 참여와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형우(2009)에 따르면 '문화재활용축제의 효과에 대한 지역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대가야, 백제문화제와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대상으로 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데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상승하는 효과를 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있을 때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은 문화향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에 대한 축제는 지역의 특색 및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관광 이벤트이다.

이벤트가 경제적 효과를 전제로 할 경우에 문화재의 보존과 체험, 그리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활용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재의 자산가치 상승효과 등 전반적인 지역 개발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 활용축제는 지역의 문화재인식 및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숙(2011)에 따르면 화북 문화유적지를 장소의 의미 발견은 새로운 인식의 관점에 따라 변화의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 되었다. 즉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와 주변을 알리는 태도의 변화에서 볼 때 주변 지역에 대한 참여자들이 현장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성 가진다는 것이다. 장소가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융화된 것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깊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인식은 고유한 입지 또는 아름다운 경관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특정한 환경에 따른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둬서 장소인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정을 마친 참여자들은

화북 문화유적지의 여러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평유적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평유적은 제1차 발굴조사 후에 학술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자산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그 후에 발굴단 의견, 국내학자 및 해외학계의 지지 적극적인 주민들의⁷⁾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에 순천 월평 구석기유적으로 국가사적 제458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계기로 종합정비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다.

첫째, 원상의 보존과 최소한의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높인다. 셋째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월평유적과 연계하여 그 주변에 있는 고인돌공원을 비롯하여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등 관광벨트의 중심에서 '지역과 역사를 보여주는 곳으로'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의 터전에 충실한 흥미로운 볼거리와 다채로운 문화 중심을 가지면 침체 상태에 있는 유적 인근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이기길, 2014)

위와 같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지역과 앞으로 수행될 월평리 유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문화유적지에 대한 선행연구 다음<표 2-5> 와 같다.

〈표 2-5〉 문화유적지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김병섭(2011)	전곡리 선사유적은 지방정부의 문화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지역의 활성화를 (구석기축제)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함
장명수(2003)	문화재에 인식과 암각화의 보존이라는 연구에서 암각화에 대한 관광자원화, 상품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보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는 필요함
전명숙(2005)	경주와 교토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정책이 중심으로 하여 관광자원 유적지의 원형보전을 통한 전통숙박 ,쇼핑자원의 개발이 어울려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중시함.
김형우(2009)	문화재 활용축제의 효과를 전제로 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체험과 개발이 에 대해서 지역문화재의 자산가치 상승효과 등 문화재 인식 및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봄
고정숙(2011)	화북마을 문화유적지를 장소의 의미 발견과 새로운 인식의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와 주변을 알리는 태도와 변화에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식이 변화가 달라진다고 봄.
월평유적(이기길, 2014)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월평유적은 원상의 보존과 문화 관광자원화 추진함으로써 주변 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문화중심으로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준다고 봄

자료 :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7) 지역 주민들의 월평 선사유적지 보존회 결성함

제2절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 인식과 태도

1. 관광영향의 인식의 개념

관광영향의 인식을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각·학습과 사고·기억하고자 하는 방식을 내포하는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 광의로는 지능, 사고와 추론, 언어, 지각 그리고 기억 등 여러 기능을 포함하는 정신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식발달이란 여러 가지 인지기능 또는 능력들의 복합적인 발달과정으로 할 수가 있다(허희영, 2006).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과 관광객들과 지역주민의 접촉으로 인하여 '관광'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관광현상을 정의라고 할 수 있다(고동완, 2001). 관광영향은 '관광효과', '관광충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관광이 발생되고 있는 유형·무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로 시간적으로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종단적인 결과물이라 한다.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관광대상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받아들인 관광형상의 결과물을 인식에 따른 관광영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잠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송우전, 2012).

김남조(2001)에 따르면 지역관광개발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지각을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고동완·김현정, 2003; 양성수 외, 2009; 고계성 외, 2011).

관광영향 인식에 의하면 Ap(1992)에 따르면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관광영향이 지역주민의 지각이 긍정적일 때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반면에 부정적일 때 지지도가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조광익·김남조, 2002; 이봉구, 2005; 안성수 외, 2009) 등의 보면 관광영향 인식을 지역주민의 태도를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관광개발로부터 얻어지는 편익(personal benefits from tourism development)을 가장 중요 요인으로 본다는 것이다(Perdue, Long, Allen, 1990; 송상섭, 2010). 따라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을 긍

정적, 부정적일 때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지역주민의 인식과 선행연구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들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지역주민 관광영향 인식에 대해서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과 사회·문화적 영향(social cultural impact),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으로 구분된다(송우전, 2012).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실제 행동의도와 관광활동에 태도를 보여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조배형, 박종진, 2007),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으로도 구분하고 있다.

1) 경제적 영향

관광개발의 대한 영향인식 및 태도에 따른 문헌과 연구들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 특히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어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관광개발이 필수조건이자 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으며, 성공적으로 개발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인식은 표면적이 보도자료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효과와는 다르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지역사회에 경제적 인 비용이 실제적으로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불이익이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객의 방문이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보면 편익측면 또는 비용측면을 포함하여 관광에 대한 긍정적(편익)측면에서 1차적 직접효과와 2차적 간접효과가 유발효과에 대별되기도 한다.

또한 관광개발 영향을 크게 보면 국가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에서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개선, 경제구조개선, 고용창출, 소득발생, 정부수입증가 기업 활동 촉진, 등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유발, 관광에 대한 과세의존, 수입성향증대, 지가상승, 생산에 대한 계절성과 투자에 대한 낮은 회수율, 기타비용의 문제 등이 발생된다.(오상운, 2009).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 지역개발에서 보면 경제적 영향에서 볼 때 지역경제 내부 고용정도와 세금, 조세수입, 기반시설과 물가, 소득, 비용 및 지가 등과 연관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경제활동의 영향 및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1) 경제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관광개발의 경제적 영향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화획득으로 국제수지의 개선되고 고용창출, 경제구조의 다변화, 국가와 지방정부가 세수 확대 등이 있다. 관광 지출에 대한 효과에서 직접·간접효과, 그리고 유발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직접효과는 관광객이 그 지역에서 최초로 경비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로 보고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관광업자들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간접효과란 1차 진출이 그 지역 경제에 투입되면 영향을 받는 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 집단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또한 유발 효과는 관광수입의 해당지역에 호텔업주, 농민 등 가계부문에서 임금이 형성된다면 지역경제가 소비지출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지역 안에서 산업의 매출액 증가와 고용기회 창출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유발효과이다. 이러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관광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여러 산업들이 혼합된 복합체이며,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집단과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산업 연관표의 의한 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에 의해 승수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의 의해서 발생한 승수효과는 관광객의 지출에 따라서 소득을 창출되고 또 다른 형태의 지출과 소득을 발생한다.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면 소비활동은 새롭게 소득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소득의 재 소비를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관광객에 의해 소비된 수입상품과 서비스의 양, 수입상품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비경향 등이 승수효과와 관계가 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개발도상국 또는 낙후된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 고용창출에 대한 직접·간접고용, 유발고용에 대해서 관광의 중요성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며 인해 관광산업으로부터 정부가 관광업체 종사자, 관광사업체와 정부소유의 관광과 연관된 업체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이자수입은 차관의 회수 등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개발이 많고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며 직접적으로 호텔, 레스토랑, 안내원 등에서 고용 창출한다. 간접적으로는 건설과 제조업에서 고용에 따른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객의 지출에 의해서 외화를 획득하게 해주며, 국제수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된다.

셋째, 관광개발은 시설의 확대를 의미하며 시설과 관련된 부문에서 수용을 유발함으로써 관광객 소비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넷째, 관광개발은 전통적으로 미개발 지역에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촉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조세수입을 관광업체로부터 직접세로 징수할 수 있다. 더불어 이자수입과 관광객이 구입한 상품, 관세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간접세의 수입효과도 있다. 그 외에도 관광개발로 인해서 지역유휴자본 동원, 그리고 부의 분배효과와 지역에 대한 고유자원개발과 소득에 따른 격차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지역,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다. 둘째, 쇼핑과 오락, 문화생활, 고용과 생산 활동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킨다. 셋째, 물리적인 부문에서 낙후, 미흡한 교통, 생산 기반시설을 증가시킨다. 넷째, 지역경제 투자,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제 활동부문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지역 내 전반적인 조세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

위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되었고 쇼핑 및 오락, 문화생활과 고용 및 생산 활동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통, 생산기반시설, 지역 내 경제 투자, 개발사업, 기반시설 정비 등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경제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

국가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과잉의존도로 인하여 가격변화와 같은 내부, 경제적, 정치적 변화, 에너지 이용과 같은 외부변화에 민감하므로 관광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은 위험한 일이다. 대부분의 국제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국적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관광대상국은 외부투자자에 대한 기술 및 비용, 대가, 지불요구에 응해야 하는 종속관계를 발생시킨다.

또한 관광지가 가지는 있는 지역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 편익과 부정적 비용의 경제적 영향이 관광의 이해관련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련자에게도 영향이 미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개발에 있어 경제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화수입에 대한 관광수입의 외부누출이 발생되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기술 관리 용역비와 관광용 물품에 대한 수입에 따른 수익의 지역 외 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개발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의 올라가고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소외될 수도 있으며 일부만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셋째, 관광개발로 인한 산업구조의 관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아가 경제적 추세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전체적 경제를 취약 시킬 수도 있다.

넷째,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타 산업에 투자했을 때의 효과보다 덜 생산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관광투자의 기회비용은 제한된 자원에 대한 관광산업에 투자에 따른 상대적으로 훨씬 더 생산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효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기회비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해당지역 내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시킨다. 또한 지역내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하는 생활비용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용 등이 증가한다.(임기성, 2013).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표2-6> 과 같다.

<표2-6>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선행 연구자	내 용
긍정적 영향	Ap & Crompton(1998) 고동완(1998,2001) 김남조(2001) 조고익(2004) 김정숙(2004) 오상운(2009)	·주민소득에 증가 ·신규고용에 따른 창출 ·경제구조의 대한 다양화 ·지역경제의 자립도 증대효과 ·지역투자에 따른 촉진 ·외지자본에 대한 투자증대 ·지방세 수입으로 인하여 증가
부정적 영향	Ap & Crompton(1998) 고동완(1998,2001) 김남조(2001) 임기성(2013)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용 증가 ·이익의 다른 편중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 ·단순서비스 직종 위주의 고용발생 ·관광수입의 외부 유출효과 발생 가능성 ·지역경제의 관광에 대한 과잉 의존성 높음

자료 : 강평년(2005.), 중도 주민의 관광태도와 관광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7(1), 이은영, 2009. 참조하여 재인용

2)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속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영향은 문화적 영향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통합에 대해서 논의되어 왔다(고동완, 1998).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실증분석은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주관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지각에 따른 연구를 보면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성적인 방법에 의해 보완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정명희, 2001).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보면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관계로 형성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영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광목적지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은 상이한 두 문화의 접촉을 발생시키는 필연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관광객들이 관광지 방문에 따른 관광지 해당 지역주민의 갖고 있는 직업, 언어와 가치관, 전통적 생활양식, 및 소비패턴 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관광지에서 관광객과 주역주민은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관광현상에 따른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라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사회·문화적 효과가 대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연차별로 동일한 시각에서 간주될 때 일치하는 견해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관광개발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가 농업에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분야에서 고용이 전환되고, 농업이 근대화로 인해 생활수준의 격차를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과의 친선교류를 통해서 상호신뢰,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외 관광개발로 인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함심 높아지고,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자녀교육의 민주화로 가족의 구조 형태가 서구화에 따른 근대화 되어 지고 있다.

(2)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부정적 측면

관광영향에 대한 개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적 영향을 보면 관광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대한 관광객들이 소비 촉진으로 인해 수입의 증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조광익·김남조, 2002). 대부분의 연구는

긍정적 영향과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관광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개관적 자료를 토대로 종단적인 결과에 따른 승수효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김정숙, 2004). 다만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는 별개로 범죄율 증가와 지역문화의 파괴 등 문화적 문제의 대두와 환경적인 훼손에 따른 문제로 관광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 되었다(고민규, 2007). 또한 부정적인 측면은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범죄 발생 증가와 미풍양속 저해, 고유문화 파괴, 알콜 중독, 모조문화 창조 등이 있다(고동완, 2001).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내용은 다음의 <표 2-7> 과 같다.

<표 2-7>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선행 연구자	내 용
긍정적 영향	Ross(1992) Ap & Crompton(1998) 고동완(1998,2001) 김남조(2001) 김의근(2004)	·공동체 의식 함양 ·노인/부녀자 사회진출 기회 확대 ·애향심, 지역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 증가 ·외지인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해소 ·지역전통문화 보전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 ·문화 및 사회활동 다양성
부정적 영향	Perdue, Long, & Allen(1990) Ross(1992) 고동완(1998,2001) 김남조(2001) 김의근(2004)	·지역주민 생활불안 ·미풍양속 저해 ·각종 범죄 증가 ·외지인에 대한 혐오감 증가 ·지역문화의 변질 ·지역이미지 훼손 ·문화적 자존심과 정체성 상실

자료 : 강평년(2005). 증도 주민의 관광태도와 관광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7(1); 이은영 (2009). 재인용

3) 환경적 영향

환경적 영향은 이전에는 경제적 영향 또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 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 독립된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관광영향이라고 하였다. 특히 종래의 자원보전, 환경오염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오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관광의 개념의 대두되면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관광개발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인문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특수성에 있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되는 목표에 도달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가까운 미래에 후세에게 남겨 주어야 할 자원보존 측면에서 환경보호는 여가공간의 합리적인 개발과 조화 있는 국토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다.

여기서 환경적 영향은 이전에는 경제적인 영향 또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독립된 차원으로 크게 관심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영향인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자원보전, 환경오염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오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대안관광으로서 생태관광 개념이 대두되면서 중요한 연구과제 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키워드로 확대되고 있다.

(1) 환경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만족감과 경험을 주며, 지역에서는 지역의 환경을 질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행정력 도입과 계획적인 통제를 가하기도 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관광지 면적 또는 관광객의 수에 따라 수용력 한계 범위를 지정한다거나, 각종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관광활동 특히, 교통수단을 제한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야생동물공원내의 개발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 내 관광개발 및 관광활동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환경의 보호와 유지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더욱이 관광개발의 환경적 영향 중 긍정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개발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킨다. 관광개발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전력, 통신시설, 도로망 등의 확충, 쓰레기 처리시설의 개선,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개선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상되어진 물리적 환경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도 관광편의 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인해 편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물리적 구조 및 환경의 개선은 환경적 영향이기 보다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구조 또는 환경의 개선으로 이해되기가 쉽다. 특히 최근 이러한 다양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제기되어 지고 있고, 환경의 범주에 대한 분분한 의견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긍정적 영향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구조 및 환경의 개선을 환경의 긍정적 영향의 범주가 아닌 사회문화적 긍정적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다(오상운, 2009).

둘째, 관광개발은 유적 및 유물, 기념물 등의 보전과 관리를 고무 시킨다. 관광 대상으로 각광받는 역사유적지나 명소 등의 주변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으로 지역의 명소난 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셋째, 관광개발은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에 관심을 고조시킨다.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게 되고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서 관광활동지 정비 및 관광대상물의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자연경관의 개선, 보전 활동이 벌어지게 된다.

위와 같이 긍정적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면, 주로 주변 공원 등의 환경의 보존, 생태적 쇠퇴의 방지, 지역의 외관 개선, 공공기반시설의 개선, 생활기반 시설 개선 등 항목들이 있으며, 부정적 환경적 영향을 보면 교통체증의 증가, 쓰레기의 증가, 소음공해의 증가, 야회휴양지의 혼잡 증가, 자연 훼손, 상수도의 오염, 마을경관 훼손 등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적지가 분포하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지역주민들은 실제 생활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다.

(2) 환경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

관광활동은 필연적인 각종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토양, 식물의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생태계에도 변화를 야기 시킬 수도 있으며, 관광객에 의해서 사적이거나 자연환경의 훼손, 관광개발로 인한 지형과 지세의 변화 등도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의 쓰레기 등 폐기물 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문제 등의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각종 시설로 인하여 심미적 부조화, 관광지의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모습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관광지의 관광활동에 의한 일시적인 관광객 급증현상으로 시설의 과밀 및 혼잡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광객의 다양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접근증가 및 이용활동의 갈등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광개발의 환경적 영향 중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광개발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 오락시설, 기타 서비스시설과 같은 하부구조의 개발로 인하여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 생태계, 유적지 등이 파괴되고 주변 화경과의 부조화를 초래하게 만든다. 두 번째, 쓰레기 등 폐기물의 발생으로 오염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 혼잡, 소음문제 등 각종 환경공해가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 무계획적인 관광개발로 인하여 관광지의 무질서한 확장(sprawl), 일시적인 관광객 격증으로 시설의 과부하(overloading) 및 혼잡(congestion)

등도 문제가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관광개발의 영향인식, 즉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효과로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내용은 다음 <표 2-8> 과 같다.

<표 2-8>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선행 연구자	내 용
긍정적 영향	고동완(1998, 2001) 김남조(2001) 오상운(2009)	· 지역직업구조의 다양화 · 공동체 의식 함양 · 노인/부녀자 사회진출 기회 확대 · 애향심, 지역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 증가 · 외지인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해소 · 지역전통문화 보전 ·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 · 문화 및 사회활동 다양성
부정적 영향	고동완(1998, 2001) 김남조(2001)	· 지역주민 생활불안 · 미풍양속 저해 · 각종 범죄 증가 · 가족구조 와해 · 외지인에 대한 혐오감 증가 · 지역문화의 변질 · 향락지향으로 지역이미지 훼손 · 문화적 자존심과 정체성 상실

자료 : 강평년, (2005) 증도 주민의 관광태도와 관광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7(1); 이은영 (2009) 재인용

3. 지역주민의 태도

1) 지역주민의 태도의 개념

지역주민의 대한 태도의 개념을 보면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관광객 또는 사람들이 선택 대상으로 되어 관광목적지가 되어 관광이 발생하는 곳에 구성원의 집합하는 장소에 있는 지역 주민을 말한다. 태도(attitudes)란 학자들 견해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사회학분야에서 정의는 개인 및 집단, 사물 등 일정한 대상에 대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신념, 감정, 행동 영향, 경험, 학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와 신념의 통치하는 개념이라 하기도 한다. 즉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상황에 대해 심적인 내용의 전체를 의미한다.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인지 후, 평가 및 반응하려는 심리적 경향이라 하고(김성민,2015), 어떤 대상의 특정 측면에서 지속적인 선유경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김만조, 2001).

태도에 대한 다른 정의를 보면 어떤 대상(objet), 사람(person), 제도(institution), 또

는 사건(event)에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이 있기도 한다(Ajzen, 1988).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지식, 개인의 의견 등을 뜻하는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와 일정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 평가 등을 의미하는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일정한 행동적 경향을 의미하는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로 구성하여 간주되어 왔다(조광익·김남조, 2002; 김성민, 2015.).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신념, 가치관, 기호, 의견 등 명확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이환봉, 2007). 이중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다는 것과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거나 인식되며 가치관은 태도에 비해 보다 큰 뜻을 지닌 개념으로서 포괄적이며, 지속적·사회·문화적인 뜻에서 지닌다는 두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태도는 개인에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태도에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태도의 특징을 보면 특정한 대상에 따라 방향 정도와 강도 및 구조를 가지고 학습된다는 것이다. 태도는 일정한 사건이나 또는 현상에 대해 찬반이나 선호의 경향이며 일정 대상에 대해 찬반의 영향을 미치는 것, 대상의 평가를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성민, 2015).

관광분야에서의 태도 연구는 초기 연구자들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행의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관광목적지에 대한 태도로 분류된다. 이중 관광개발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긍정적 지각이나 혹은 부정적 지각을 지역 주민의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추진되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남조, 2001; 김성민, 2015).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관광개발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관광객의 관광활동 공간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관광개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태도는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방문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고동완·김현정, 2003; 김성민, 2015).

Brougham & Butler(1981)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연령, 학력, 직업 등, 중요 관광지역과 거주지역의 거리, 관광의 대한 경제적 의존도, 그 외 거주기간 및 관광객과 접촉정도 등에 따라 관광영향인식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송상섭, 2010). 즉, 실생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광 및 관광개발

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생하는 영향의 종합적인 판단 및 정서적 반응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양필수·고계성·임화순, 2008).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있다고 보고(최순목·김남조, 2005; 김성민, 2015). 관광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집단의 지지도와 긍정적인 태도는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효율적인 관광개발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자 필연적인 지역주민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계성외 2001).

2) 태도의 특성

태도는 각 개인이 성향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모든 태도에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태도의 특성을 보면 대상을 가지며 방향, 정도, 강도 및 구조를 지닌 학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학식, 2003).

첫째, 태도에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태도대상(attitude objet)은 경영학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는 물론, 소비자 보호운동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과 제품구매에 대한 행위도 포괄한다. 또한 구체적인 한 상표이거나 집합적인 제품 범주를 포함 대상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태도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향(대상에 관심은 호의적인가? 또는 비호의적인가?), 정도(대상을 얼마나 좋아 하는가? 혹은 싫어 하는가?), 강도(대상에 따른 태도 표현이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가?)를 말한다(정호찬·리선아, 2011).

셋째, 개인이 대상에 갖고 있는 태도에 따른 가치와 자아 이미지가 중심이 되어 중심점을 가지면 큰 태도일수록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넷째, 개인이 현재 갖고 있는 태도들이 대해 서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유입되는 공존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태도는 학습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 동료집단 그리고 친구와 판매원, 뉴스매체로 받는 정보 및 경험, 개성(personality)등으로 영향을 받으며 학습되어 진다. 셋째, 태도는 어떤 상황 내에서도 존재하며 상황이란 주어진 시점에서 태도와 행동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이나 정황 등을 고려한 내용을 말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태도의 특성처럼 관광태도의 경우도 관광객이 관광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 관광경험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과 관광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느끼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태도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영향요인들로 인해 개인에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최규성, 2004). 이와 관련된 태도의 개념과 연구내용에 따른 학자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표 2-9> 같다.

〈표 2-9〉 태도의 특성

연구자	내 용
Freedman등(1977) 신도길(1993)	특정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조직과 조직의 속성 : 인식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들로 구성됨
David L. London & Albert J. Della Bitta(1984)	태도는 동일하지 않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을 통해 학습된다고 함
Eagly & Chiken(1993) 강미희(1999)	태도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태도대상과 관련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명확한 행동과 관련한 진술 등의 행동경향
Lindberg 등(1997)	대상에 대한 제 속성과 관련된 평가적 모든 관념과 이미지, 체계로 된 시스템
이강재(2001)	태도 대상과 관련한 생각, 느낌 또는 태도 대상에 대한 명확한 행동 혹은 행동과 관련한 진술 등 행동경향을 뜻함

자료 : 여효근(1999), 관관태도 결정요인이 지속가능한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 강신겸(2001); 심현정(2008); 이용학(2014) 재인용하여 재구성

3) 구성요소

태도개념은 오랜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해 왔었다. 특히 소비자 행동연구에 관한 태도조사에 따른 신제품개발과 기존제품의 평가 및 광고 전략의 창출에 따른 선호하는 상표의 예측과 일반적인 구매성향을 파악 하는데 경영학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전통적 태도모형인 태도를 세 가지 요소의 구성체(three component)로 본다. 요소에는 인지적(cognitive), 감정적 (affective component), 행동적 (conative component)가 있다(채담, 2006). 먼저 인지적 요소를 보면 사람들이 태도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말한다. 감정적 요소를 보면 태도 대상과 관련한 느낌 또는 반응을 일컫는 말이다, 행동적 요소를 보면 태도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명확한 행동과 관련된 진술 등이 행동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 결정요인에 따른 태도, 행동, 의도, 행동 및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확장 적용하기 위하여 태도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태도 대상과 관련한 생각이나 느낌,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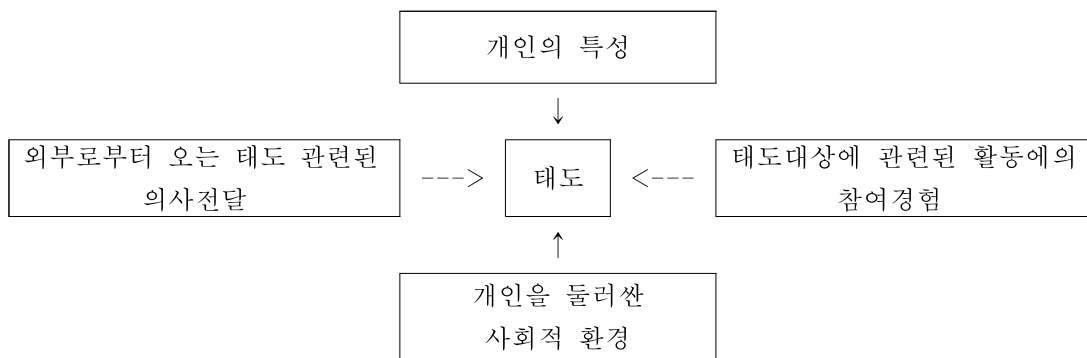
는 태도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명확한 행동 혹은 행동과 관련한 진술 등의 행동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미경, 2005).

위와 같이 개인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행동양식, 존재상태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도가 내재화되면 행동에 대하여 기준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태도를 발전시키고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비교하며 판정하게 된다(윤지현·이환봉, 2008).

4) 태도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

개인의 행동에 태도에 미치는 요인은 [그림 2-2] 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지를 제공하는 경험을 비롯하여 노출과 반복되는 자극, 가족, 학교 등을 통한 사회학이다. 개인의 태도를 보면 인지적, 정서적, 조직과 집단의 의한 문화, 규범, 관습 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의 태도는 직·간접적인 경험과 연상(association),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 아울러 태도에 대한 인지적 영향요인을 보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연령, 성별, 사회계층, 직업, 성격에 표출된다. 이러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림 2-2]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최규성(2004), 재인용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면 유년기에 형성되는 성격과 소속된 조직과 사회의 집단적 성향과 함께 하는 사회적 태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환경과 처해진 상황, 그리고 그 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적인 사상과 가치관 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소속 집

단 또는 준거집단에 따른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이다(김준식 외 2004), 인간은 처해진 상황에서 다양한 영향요인을 수용하면서 갈등과 조정을 통한 내적요인으로 인해 선택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태도에 관련된 연구들은 선행요인 → 태도 → 행동 의도에 의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며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 태도 → 행동의 의한 관계를 보면 인식 후, 행동 전에 단계를 봐야 하는 것이다(이은경, 2009).

4) 지역주민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지역주민의 대한 태도는 관광개발에 따라 표출되므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평가하고 개발에 따른 여러 분야에서 관광지를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광에 있어 공공·민간부문의 협력은 정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이 집단 간 협력으로 갈수 있는 중요한 동기기 되므로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홍성화, 2003).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관심이 되면서 1960년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연구의 초점에 맞추었고, 1970년대는 들어서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다(조명환·양봉석, 2004). 관광에 대한 태도는 관광행위나 관광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인식과 지각이며, 이러한 태도를 종합적인 판단 및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변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조명환·장희경, 2005)

관광은 항상 긍정적면과 부정적 영향도 공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의 갈등, 개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보는 것이다(서용건·허향진·고광희·김용이, 2005).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에 대하여 조사한 초기 연구자들은 관광영향 초점을 두어 여러 형태의 영향과 관련하여 척도에 따른 구성하거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는 데 있어 관광태도를 관광지각적 접근법을 다뤘다. 관광영향태도척도(TIAS: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은 Lankford & Howard(1994)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즉 관광영향태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27개 변수를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중항목태도척도를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가 개인적·지역적 이익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항목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S.V. Lankford & R. Howard, 1994). Lindberg & John(1997)은 가치-모델(value-attitude model)과 기대-가치모델

(expecancy-value model)을 이용하여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모형화 했다. 측정 변수로 관광의 변화에 대한 요구정도, 교육수준, 가처분 가계소득, 교통에 대한 혼잡성, 지역 사회에서 소음과 경범죄의 양과 관광객들의 만족스러운 상호작용, 주택소유자들의 재산, 지역사회의 매력, 주변풍경의 매력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의 수, 사회의 혼란정도, 주차능력, 삶의 수준, 지역 교통량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태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보면 김남조(2001)에 따르면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자각, 태도, 기대행위 차이 연구에서 관광태도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 및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관광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 관광의 영향에 대해 느끼는 생각을 보고,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인식, 종합적인 여건 평가로 태도를 측정했다(최병길 · 송재호 · 김시영, 2004)

이후석(2004)에 따르면 지역주민 태도를 관광개발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로 보아 개발기대, 지역여건 및 의견반영, 개발의 필요성 등 10개의 척도를 가지고 태도를 측정하였다.

김석출 · 최영희 · 김학군(2006)에 따르면 관광개발에 대해서 지역주민, 관광객, 공무원간의 관광영향지각 그리고 태도와 만족도 차이 연구를 통해 관광영향지각에 대한 공무원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부정적인 지역 환경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검증을 통해 공무원은 대규모 시설도입지향과 친환경적인 개발 지향에 욕구가 높은 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친환경 개발 지향을 원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전문가의 자문 및 공천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반영을 주장하였다.

이환봉(2007)에 따르면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를 통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의존도, 생태계에 대한 태도, 지역사화 애착도, 관광개발에 따른 인지·지각에 의해서 혜택, 비용 등으로 구분하였고 개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진범(2008)에 따르면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을 경제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 환경적 편익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각을 파악하여 경제적 영향이 태도에 미치는가에 따른 분석한 결과 관광개발에 따른 근거리 지역주민들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원거리의 주민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강태원(2009)에 따르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태도는 영향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의 3가지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관광영향 요인이 나타나고, 이는 지역주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광개발추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불균형적인 태도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성민(2015)에 따르면 지역사회 애착도는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행연구와 다르게 관광개발의 인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지속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홍보 및 올바른 정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2-10> 지역주민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0> 지역주민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 연구자	내용
김남조(2001) 이후석(2004) 강태원(2009) 조은경·한상열·유리화·김재준(2009)	관광개발 및 관광영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 부문으로 구분함
최별길·송재호·김시영(2004) 이환봉(2007)	주민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광개발로 인한 혜택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함
김남조(2001) 김석출·최영희·김학군(2006) 심진범(2008) 김성민(2015)	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태도를 측정함

자료 : 김성민(2015), 이은경(2009), 장미경(2005)의 선행연구자 토대로 재구성

4. 관광영향인식과 지역주민 태도 선행연구

관광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 관계 연구는 관광개발의 제한에 대한 지지는 관광영향의 긍정적 인식 및 추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와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각된 관광영향인식에 따라 추가 관광개발 및 관광개발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주민 간에 태도차이 즉, 집단 간 갈등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동완, 1998).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영향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주

민들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관광개발 수준 및 전체 경제활동이 높은 주민들보다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서의 오히려 경제활동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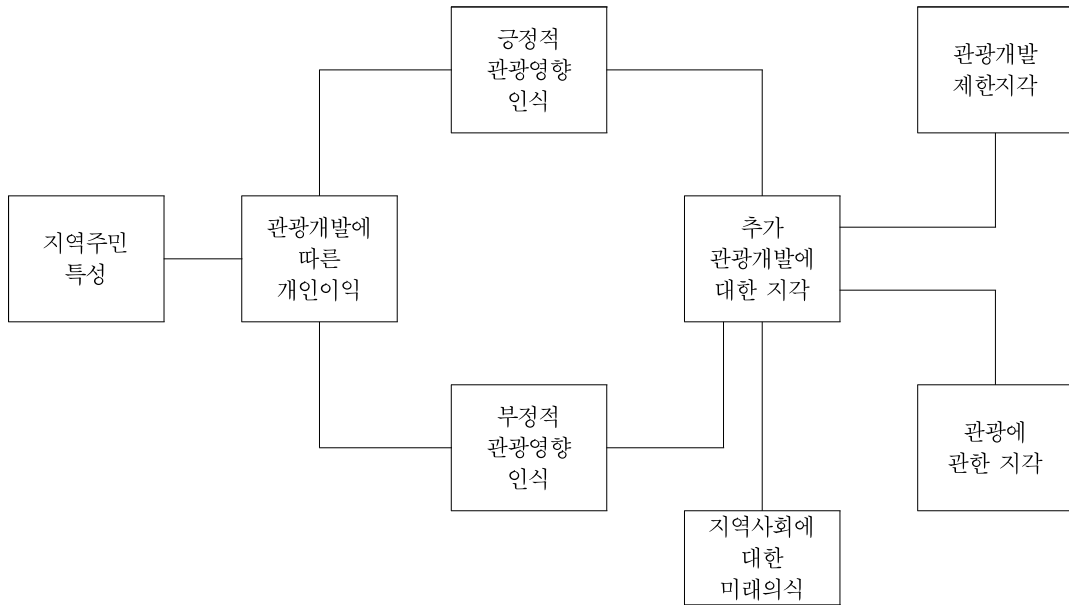
최병길·송재호·김시영(2004)에 따르면 대규모 관광지인 성산포해양단지가 조성될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성산읍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표본을 도출하여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영향인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주민들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관광관련 직업 관련성을 있을 때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인식을 긍정적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인식의 차이에서 기반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에 대한 궁극적 목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관광개발의 경제적 혜택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광익·김남조(2002)에 따르면 제주 성읍민속마을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과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과관계가 사회교환이론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경제적 편익,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과 태도와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의한 비용 및 편익의 결과에 평가는 추가적인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석(2004)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드라마 방영과 동시에 급속한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과 태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히 경제적 영향 인식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란 것을 밝혀냈다

조명환·양봉석(2004)에 따르면 김해시 수로왕릉 일원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영향지각과 관광태도와의 관계, 관광영향 지각과 관광자원과의 관계, 관광태도와 관광자원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2-3] 지역주민의 관광인식의 관광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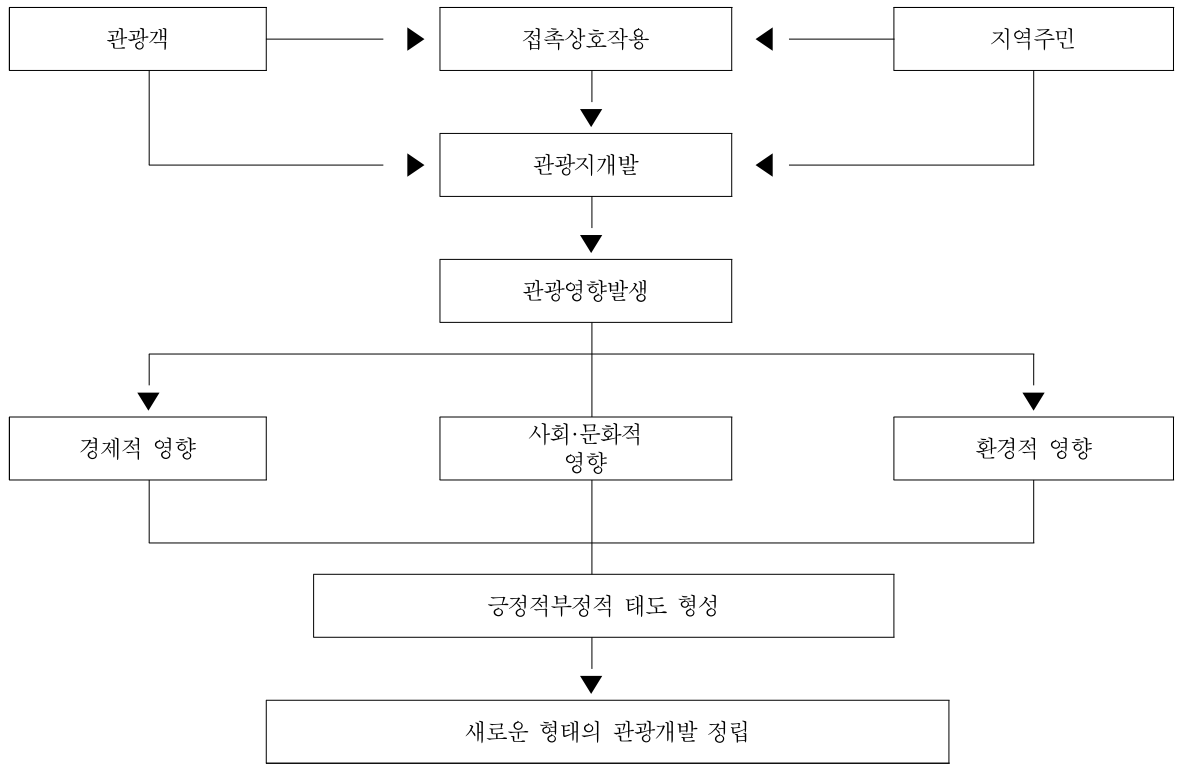


자료: 장미경(2005), 이은경(2009), 재인용.

따라서 관광영향인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볼 때 지역 관광영향의 긍정적 태도는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관광개발의 제한에 대한 지지는 관광영향의 긍정적 태도 또는 서로 다른 태도를 형성하는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역주민 사이의 수평적 갈등을 보면 관광객와의 관계(수직적 갈등)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의 주민 유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낮은 수준의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더 높다는 것을 [그림 2-3] 지역주민의 관광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2-4] 은 관광영향인식과 태도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도착하여 지역주민과 상호접촉을 보면 관광목적지에는 관광영향이 발생되면 그 영향은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영향이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이 정립되는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장미경, 2005; 이은경, 2009).

[그림 2-4] 지역주민의 관광태도



자료: 채단(2006), 이은경(2009), 31(4) 재인용.

제3절. 조사대상지 일반 현황

1. 조사대상지 개관

삼양동은 제주시내와 인접하여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망도 좋은 편이다. 삼양동은 1931년에 제주읍 삼양리로 정했다가 1955년에 제주시 삼양동으로 바꾸게 되었다. 1962년에는 옛 삼양동과 도련동을 합하여 삼양동이라 하였고 현재 제주시 5개의 법정동으로 삼양1동, 삼양2동, 삼양3동, 도련1동, 도련2동 자리하고 있다. 총면적은 9백52만 4천1백66㎡의 8.57%에 해당한다. 삼양동 초기 취락구조는 삼양동선사유적지를 비롯한 선사시대 유물들을

보아 짐작할 수 있는데, 과거 삼양동의 취락은 조상들이 자연환경이나, 수렵, 어로 등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삼양동 선사유적지의 경우 과거 삼양동의 취락구조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검은 모래해변과 원당봉과 올레길(18코스)가 개설되어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용수에 편리해 취락이 밀집되어 있던 해안지역과 더불어 현재는 상업과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로 취락이 밀집되고 있다. 현재 인구 및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남:10,131, 여:9,855 총 19,986명이며 가구현황은 7,486이다.

또한 용천수가 풍부하여 제주시내에 식용수로도 일부 공급하고 있다. 기후는 북동풍은 여름에 많이 불고, 북서풍은 겨울에 강한 편이다. 여름과 겨울에 부는 계절풍 영향으로 인한 파도로 밀려온 모래가 해안 200m 이내의 평지와 동산을 만들어냈다. 이런 기후 영향으로 척박한 경작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왔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주택이 보급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어업과 일부 해수욕장인근주변으로 요식업 및 숙박업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삼양동은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현재 삼양동의 문화자원 보유현황을 보면 전시박물관 1개, 국가지정문화재 3개, 도지정 문화재 11개 등이 있다(문순덕·고승덕, 2010).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가적으로 지정된 선사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국가사적 제416호)⁸⁾, 도지정문화재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⁹⁾, 제주특별자치도 3개인 지정 기념물 지식묘인 도련 지식묘 1호(기념물 제2-8호)¹⁰⁾, 도련 지식묘2호(제 2-9호)¹¹⁾, 삼양 지식묘(기념물 제2-10호)¹²⁾ 그 외 무형문화제인 망간장 이수여(중요 무형문화제 제66호)¹³⁾와 고분양태 기능보유자 송옥수(제주도 무형문화제 제12호)¹⁴⁾, 초가 및 삼양 환해장성, 삼화지구에서 발굴조사 후 야외에 전시공간을 조성되어 있다. 그 외 올레길(18코스)가 조성되어서 삼양동의 올레를 통한 생태 녹색 여행 및 제주의 해안과 원당봉을 포함하여 불탑사 오층석탑과 함께 올레꾼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전하고 있다.

8) 1999년 11월15일에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 1559번지 일대

9) 1971년 8월 26일 지방유형문화재 제1호 로 지정, 1993년 11월 19일 보물 제 1187호로 지정.,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696번지 원당사지 내

10) 1971년 8월 26일, 제주시 도련2동 526-1번지, 2011, 문화유적분포지도 - 증보 제주시- 제주시 제주문화예술재단.

11) 1971년 8월 26일, 제주시 도련2동 53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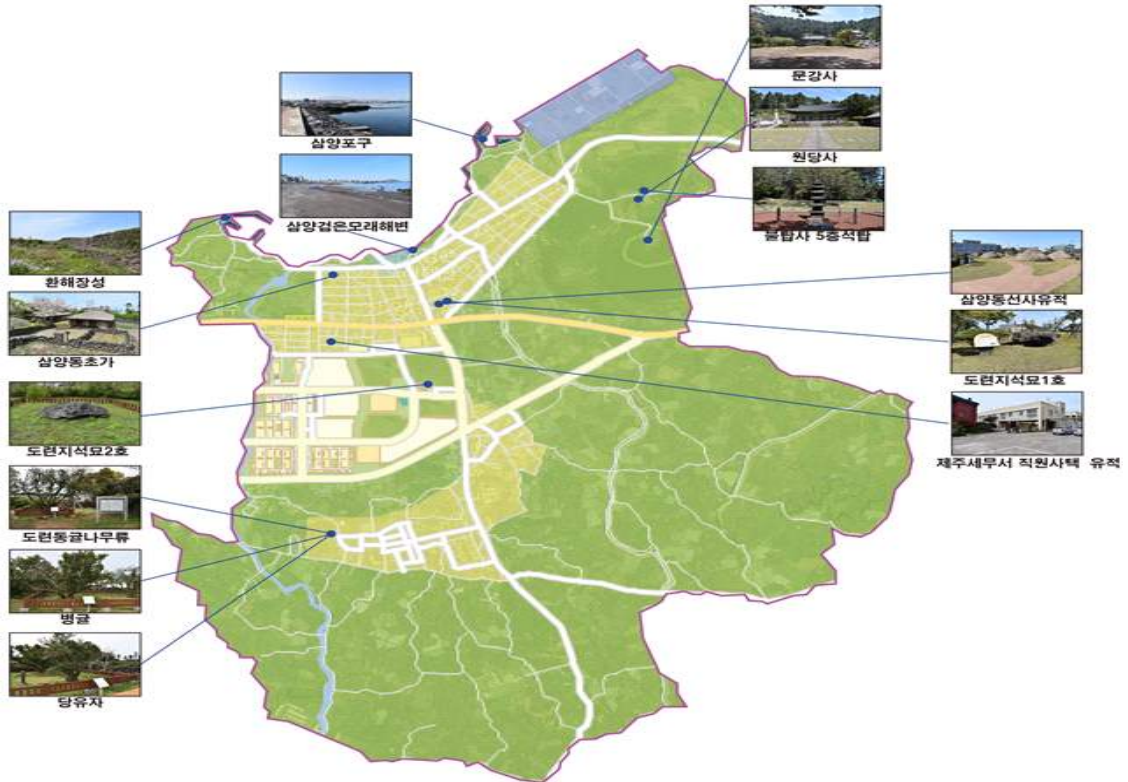
12) 1971년 8월 26일, 제주시 삼양동 2252-1번지

13) 1987년 1월 5일 지정, 제주시 삼양2동 2081번지

14) 1998년 4월 8일, 제주시 삼양2동 2079번지

제주시 삼양동 문화재 분포배치도 현황을 [그림 2-5] 와 같다.

[그림 2-5] 제주시 삼양동 문화재 배치도 분포현황



자료: 네이버 지도(삼양동)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2. 조사대상지 문화자원 분포현황

삼양동 지역에 문화재를 살펴보면 삼양동 선사유적지, 불탑사 오층석탑, 지석묘, 삼양환해장성 등이 있다. 삼양동의 유형별 문화재 특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제주시 삼양동 유형별 문화재 특징

유형별 문화재	특징
제주 삼양동유적	- 국가사적제46호(1990.11.15.), 선사시대유적(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 삼양1동 1559번지 일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 도지정유형문화재(제1호, 보물 제1187호, 1993.11.19.), 고려시대 후기 - 삼양1동 696번지 일대
지석묘	- 삼양지석묘(도기념물 제2-10호), 삼양1동 2252-1번지의 2필지일대 - 도련동 지석묘(도 기념물, 1971.8.26., 제2-8호, 제2-9호, 선사유적내 이전)
삼양 환해장성	- 도 기념물 제 49-3호(1998.1.7.), 고려시대~조선시대 - 삼양3동 2622-13번지 외 1필지
삼양동 초가	- 민속문화재 제3-1호(1978.11.4) - 삼양2동 2100-13번지 외 1필지
무형 문화재	- 중요 무형문화재 제66호(망건장 이수여) -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2호(고분양태 기능보유자 송옥수)
도련동 굴나무류	- 도련동 굴나무(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제523호), 병굴나무, 산굴나무 - 제주시 도련1동 2243, 2244-2번지 일대

자료: 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2011),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1)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은 1999년 11월에 국가사적 제416호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 1559번지 일대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일부 복원되어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삼양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발견되었던 선사시대 유적으로, 기원전 150년~기원 50년대 청동기시대 선사 집단 주거지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후기문화로 볼 수 있는 유적임과 동시에 제주지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수용단계의 취락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임이 인정되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김경주, 2009).

이 일대에서 1923년 처음으로 유물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2년에도 석도가 발견되면서 그 후에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송국리형 움집터(내부에 타원형 구덩이를 조성하고 그 양쪽에 기둥구멍을 설치한 집터)로 축조된 동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마을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선사주거지인 대략 200여 동 집터를 중심으로 공동창고, 야외화덕, 토기 가마, 저장구덩이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마을 외곽에는 고인돌과 움무덤, 독무덤을 축조하여 거주

공간과 무덤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 삼양동 유적에서 출토유물을 보면 삼양동식토기,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등의 토기와 돌도끼, 마제석촉, 돌끌, 갈돌, 연석, 고석, 홈돌, 마제석검, 마제석부, 옥환, 동촉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삼양동식토기는 아가리가 곧거나 밖으로 살짝 바라지고 동체부가 볼록한 모양의 토기이다. 청동기시대에 주로 제작되는 민무늬토기의 제작수법과 유사한 그 보다는 발전된 제주도식 토기이다. 또한 청동검, 옥환, 옥 등이 출토됨에 따라 삼양동에 거주했던 선사인들은 한반도를 연계하여 외부지역과도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할 수가 있다. 현재 전시관 구성을 보면 외부 전시관에는 원형주거지 4동과 굴립주건물지 2동 등과 발굴당시의 주거지와 기둥구멍들을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야외에 대형움집 1동과 방형움집 1동 및 원형움집 11동, 굴립주건물지 1동이 14동이 복원되어 있고 내부 전시관에는 삼양동유적에 대한 출토유물과 설명자료와 일부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서 제주 선사인들의 과거의 자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 전경 및 세부는 [그림 2-6] 와 같다.

[그림 2-6]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 전경 및 세부



2)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제주 불탑사 오층 석탑은 [그림 2-7] 와 같으며 1971년 8월 26일 지방유형문화재 제 1호, 1993년 11월 19일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6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탑의 전체적인 모양이 조형성이 적고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무거

위 보인 점을 미루어보면 지방색이 강한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원당사지가 위치하는 곳은 원당봉은 삼첩칠봉(三疊七峰)이라 하여 제주도 명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태자가 없어 고민하던 중국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제 당시 '북두칠성의 명맥이 비치는 동해 끝 삼첩칠봉 하에 탑을 세워 불공을 드려한 한다'는 승려의 계시를 믿은 순제의 제2황비였던 기황후의 간청에 의해서 원당사와 함께 불탑사를 세워 사자(使者)를 보내어 불공을 드린 결과 아들을 얻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찰은 17세기 중엽까지 존속되었다가 그 후로는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오층 석탑만이 남아 있다.

[그림 2-7] 제주시 삼양동 불탑사 오층석탑 전경



탑은 옥개석(屋蓋石)의 비례에 의해서 축조되었으며, 각 층의 부분 양식은 고려시대의 조각수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탑이 높이는 395cm, 측면 넓이 84cm, 정면 너비 89cm이고 1층의 기단석과 5층의 옥신(屋身)은 심하게 좁아져서 특이한 양상을 갖고 있으며, 각 층의 옥신이나 옥개는 하나의 돌로 축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옥신이 문양은 사각형에 아무런 문양 없이 간략한 형식이며, 네 귀퉁이는 처마 끝만 살짝 올려 마무리 장식했다. 옥신이나 옥개가 변화된 간략한 형식은 보기 드문 양식이며 상륜부(上輪部)에는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보개(寶蓋)가 올려진 상태이다. 1998년 상륜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직경 92cm, 높이 9.0cm, 구멍직경 2.7cm 보주(寶珠) 또는 용차(龍車)로 추정되는 석제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이 유물의 구멍에는 철물(鐵物)에 꼽혀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상륜부에는 철제찰주(鐵製찰主)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초층탑신(初層塔身) 정면에는 흠이 패어 있다. 이곳에 사리(舍利)가 봉안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상대석이 전면과 좌우측에 연화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지금도 탑의 주변에는 많은 양의 기와 편 및 도자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그 당시 절은 세 번의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불탑사 오층 석탑만이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2002년 9월 불탑사 오층 석탑 복원 계획 수립 후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해체 복원되어 있다.

4) 지석묘

지석묘는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고인돌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대인의 무덤양식으로 땅속이나 땅위에 돌로 무덤방을 만든 후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무덤이다. 제주도 지석묘의 약 100여 개 정도이며 대부분 단독으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석묘군은 지석묘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분포 상태는 해발 100m 미만의 해안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대부분이 제주시 지역을 비롯해 서북부와 서남부지역에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남부에는 매우 드문 편이다.

제주도 지석묘의 형식은 크게 매장부의 위치 그리고 지석의 고임 방식을 큰 분류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형식 분류의 기준이 되는 매장부의 위치는 시신을 지하, 혹은 지상에 매장하는가에 있다. 지석의 고임 상태는 곧 상석을 올리는 방식이 된다.

이와 같이 매장 시설이 위치와 고임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제주도 전 지역에 산재한 지석묘를 분류하면 대체로 여섯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지석 없이 상석이 지표에 바로 닿는 개석식 혹은 무지석 형태이고, 두 번째로는 남방식 유형에 속하나, 남방식에 비해 지석의 대부분이 제대로 다듬지 않은 활석을 사용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상석이 한쪽이 들어어 하부 매장부가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 좌우와 들리지 않은 뒤쪽에 지석을 고인 형식을 말한다. 네 번째로는 지석을 이중으로 고인 것으로 비탈면을 이용하여 한쪽을 작은 활석으로 고인 형식이다. 다섯 번째로는 형식이 비탈면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활석과 괴석을, 그리고 낮은 곳에 판석을 고인 형식이다. 마지막 형식으로는 상석 밑은 완전하게 판석형 지석을 에워싸 고인 형식으로서 언뜻 보기에는 지상에 장방형 혹은 원형의 석실을 만든 것처럼 보인다.

지석묘 축조시기를 가름하는 것은 묘제가 축조할 때 당시 관련된 부장유물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반도의 것은 대체로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까지 편년되나, 제주도의 경우 앞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축조 시기는 경질무문토기시기인 탐라전기로 서기 0~50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석묘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석묘 주인인 피장자는 적어도 마을 구성원 중 일정한 지위에 있는 신분을 가지 자로 추정되고 있다.

(1) 도련동지석묘 1호

도련동 지석묘 1호는 197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고 위치는 제주시 도련2동 526-1번지(삼화지구 선사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바둑판식으로 상석이 놓인 면은 평평하며, 상석의 크기는 (245×175× 35~40)cm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방향으로 삼양지석묘 2호의 방향과 동일하며, 축조 시 상석 자체의 두께가 고른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석 동서편은 수직으로 다듬은 인위적인 흔적이 확인된다. 받침들의 높이는 0.15cm 정도로 3개가 덮개돌을 받치고 있으며 한쪽은 높이 22cm로 들려 있어 상석 북동쪽으로 아치형으로 개방되어 있다. 덮개돌의 거북등 모양은 일본 북구주(北九州)에 분포하는 고인돌 특징을 가진 제주시 외도동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 도련동 지석묘 2호

도련동 지석묘 2호는 197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고 제주시 도련2동 529번지(삼양동 선사공원 내) 위치하고 있다. 바둑판식으로 상석은 (222× 205×15~52)c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상석의 북동부분과 남서부분은 으깬 흔적이 남아 있으며 북편에는 정질하다만 인위적인 흔적이 남아 있다. 받침들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덮개돌 한쪽이 들려져 있고, 제주도 고인돌의 유형인 아치 모양형태로 원래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련1동 689번지 농경지에 있던 도련동 지석묘는 2005년 5월 삼양동 유적으로 이전 복원했다.

(3) 삼양동 지석묘

삼양동 지석묘는 [그림 2-7] 과 같이 197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10호로 지정되었고 제주시 삼양동 2252-1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을 향

하고 있고 상석은 (219×157×35~50)cm이고 지석묘의 형태는 직사각형 모양에 가깝다. 상석 아래에는 동·북·남쪽에 자갈한 자갈들로 받침돌을 괴었고, 서쪽에는 곧바로 지표에 닿아있다. 이것은 경사진 지형에 고인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는 받침돌을 세우지 않고 만들었다. 상석이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원인도 경사진 지형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삼양동과 도련동에 자리하고 있는 고인돌 특징을 보면 서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지만 시기적인 면에서 양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8] 제주시 삼양동 지석묘 전경



5) 삼양동 초가

강운봉 가옥 초가는 1978년에 민속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00-13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다. 부정형 대지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다방향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 가옥의 전경은 [그림 2-9] 과 같다.

초가 내부를 살펴보면 마당 서쪽에 동향으로 안거리가 있고 안거리 맞은편에 밖거리가 서향으로 마주하고 있는 두거리집 형태이다. 올래와 이문간을 거쳐 마당으로 진입하는 일반적인 제주도 초가 양식과는 다르게 양쪽에 우영을 끼고 있으며 一자형의 긴 올래를 조성되어 있다. 이문간이 없고 안거리와 밖거리, 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가가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동서)에 마주보게끔 배치를 하고 있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모두 2고주 7량집으로 지붕은 용마름이 없는 우진각 모양이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2-9] 제주시 삼양동 초가집 전경 및 세부



6) 삼양 환해장성

삼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환해장성은 [그림 2-10] 와 같으며 1998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9-3호로 지정되었고 제주시 삼양3동 2622-1번지 외 12필지에 위치하고 있다.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해안선 중심으로 돌담을 쌓았는데 이를 환해장성이라 한다. 현재 성벽이 잔존되어 있는 곳으로는 온평리, 행원리, 한동리, 동복리, 북촌리, 애월리, 고내리 등 14곳이 위치하고 있다. 김상헌이 지은 『남사록』에는 환해장성을 일러 ‘탐라의 만리장성’이라 부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양동 환해장성은 1270년(원종 11) 고려 개경정부의 관군 군사들이 남하하는 삼별초 군사의 제주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조한 성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삼별초 선발대가 들어와 제주에 있던 재경정부의 관군을 물리치고 재 침입하는 여몽 연합군을 막기 위해 다시 정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에 조선시대 들어와서 왜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성으로 활용되었고 현종 11년(1845)까지 증축 및 수리 되었다. 현재는 별도마을과 별랑마을 중간에 해당하는 곳에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성 밖의 지형은 낮은 편이고 성 안의 지형은 높은 형태로,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전체 길이는 약 280m이다. 바깥쪽의 성벽은 비스듬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안쪽의 성벽은 직각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2-10] 제주시 삼양동 환해장성 전경



7) 도련동 귤나무류군

도련동 귤나무류군은 [그림 2-11] 과 같으며 2011년에 천연기념물 제523호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6길 21에 위치하고 있다. 지정되어 있는 귤나무 수량은 4종류 6그루가 정도 있으며 크기는 6~7m, 수령은 100~2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주에서 재배되어 온 제주 귤의 원형을 짐작할 수 있다. 생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1] 도련동 귤나무군 전경 및 세부



8) 삼양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은 삼양수원지의 개발로 인하여 폐쇄되었다가 2004년 제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장되었다. 그 전경은 [그림 2-12] 과 같다. 삼양해수욕장은 검은 모래로 유명하고 솟는 용천수가 있으며, 편의시설이 잘 갖추고 있는 탈의장, 샤워장, 야영장 및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2-12] 삼양해수욕장 전경 및 세부



또한 시내와 가까이 있어서 여름이면 철분이 많이 함유된 검은 모래로 모래찜질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특히 신경통, 관절염과 피부염, 무좀 등에 특효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모래찜질 외에도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며, 주변 어디에서나 가능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호응이 좋은 편이다 (우리고장 이야기, 2014).

9) 용천수

제주도의 해안 및 중산간 지역 곳곳에는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나는 용천수가 흐르고 있다. 용천수의 전경은 [그림 2-12] 과 같다. 「제주의 물, 용천수」(제주도, 1999)에 의하면 삼양동의 용천수는 17개소로서 삼양1동에 위치한 용천수가 고내이물 외 7개소, 삼양2동 뚝벙이물 외 3개소, 삼양3동은 새각시물 외 4개소이다. 표고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해발 5m 이하가 14개소로 가장 많은 편이고, 다음은 5~10m가 3개소를 대부분 바닷가에 인접해 흐르고 있다.

[그림 2-13] 제주시 삼양동 용천수 전경 및 세부



위와 같이 용천수 17개소를 1999년 조사 당시 용도별로 분류하면 생활용으로 이용되는 곳이 1개소, 농업용이 3개소, 이용되지 않은 곳이 7개소이다, 물이 고갈되어 멸실된 곳이 4개소이며, 상수원으로 공급되는 곳은 3개소로 35.3% 이상이 현재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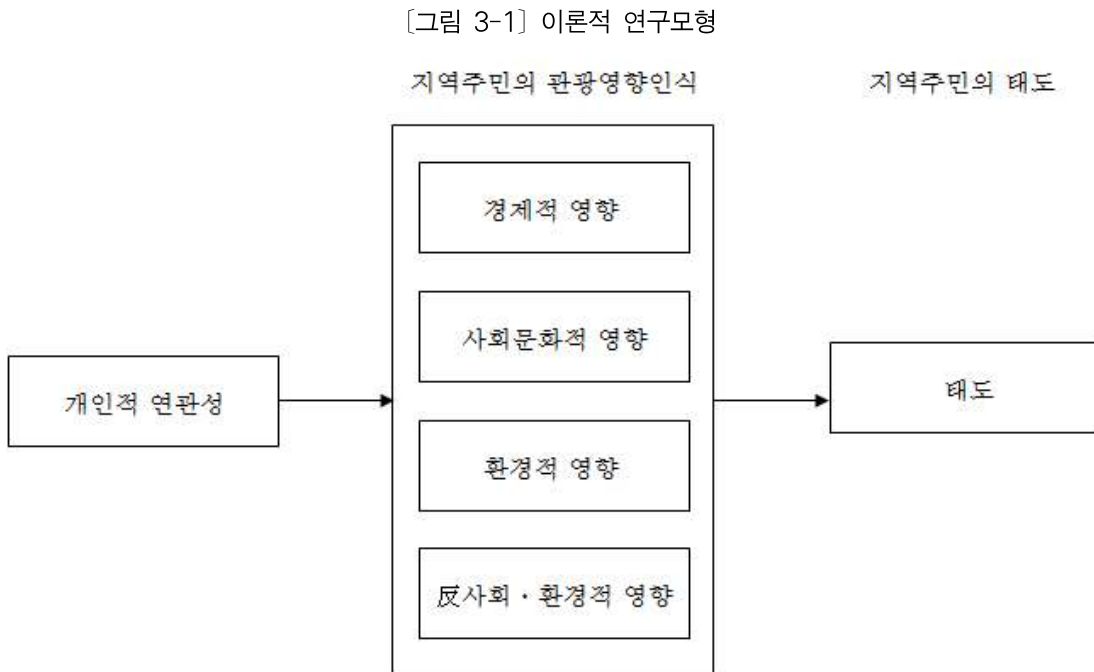
삼양1, 2 수원지에서는 하루에 3만 6,7천 톤의 물이 용출되고 있어서 대부분 별도정수장과 작은 양은 도련정수장으로 보관하다가 삼화주공APT, 도련동, 삼양동 일대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 외 남아 있는 용천수는 다시 영평 저수지로 보내져 일도 지구에 공급하고 있다. 삼양동 지역에서 용출되는 물은 제주시 하루에 쓰는 물이 14%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로 보면 9%를 공급하고 있다. 아쉽게도 삼양 3동 수원지는 바닷물 유입으로 염소이온농도가 높아 상수도로서의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용천수가 활용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멸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 3 장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삼양동 지역주민들이 문화 자원인 문화유적지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이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 이론적 배경,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개인적 연관성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反사회·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3-1] 과 같다.



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가설 H1은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H2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가설 H1: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反사회·환경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적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反사회·환경적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개념에 대해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이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해당변수들과 요인들의 개념과 특성을 기초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1).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관광영향 인식(Perception of tourism impacts)이란 관광시설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 지역주민의 접촉 등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이다. 관광영향은 관광이라는 사회현상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결과로써 관광영향의 본질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2)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

문화유적지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즉, 문화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유적이란 원래 선인들이 남긴 재보(財寶), 가옥(假屋), 토지(土地) 등 화폐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켰으나 널리 문화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뜻에서 문화유적이거나 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한다.

3)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주민의 인식 사회현상에 따라 나타내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말하며 관광이나 관광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및 정서적 반응을 정의한다.

제2절 연구의 조사 설계

1 조사대상지 선정 배경

본 연구에서 수행을 위한 삼양동 지역은 제주시내 동쪽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은 모래로 유명한 해수욕장과 인접하여 선사유적지, 오층석탑 등 다양한 문화유적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용천수가 풍부하여 제주시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수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삼양동 지역 입지조건이 마을 내 위치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이나 개인적인 토지 및 주택관련 사업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의 인한 사업 시행 전에 발굴조사 등 실제 지역 주민들이 발전 저해 요인 등 부정적인 영향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실증 분석하여 검증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인 거리, 고용혜택과 거주기간을 실증 분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주민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역 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개발 및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제3절 설문지 구성과 분석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방법은 직접기입법을 이용하였다. 이용된 설문 문항은 지역주민의 인식, 태도, 개인적 연관성,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구성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측정하였다.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그렇다'에서 '그렇지 않다'로 Likert 5점 척도로 질의 문항으로 경제적 영향 7개, 사회·문화적 영향 11개, 환경적 영향 7개, 태도 10개, 개인적 연관성 5개, 인구 통계학적 특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항목은 이용학(2014), 송우전(2015), 송재호·고계성(2015) 등의 연구를 토대로 측정항목을 추출하였다. 지역주민에 태도에 대한 항목은 조명환·양봉석

(2004), 이후석(2004)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학력, 나이, 년 가계소득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의 구성

내 용		문항 수	척도	선행연구
관광 영향 인식	경제적 영향	7	리커트 5점 척도	이용학(2014) 송우진(2015) 송재호·고계성(2015)
	사회·문화적 영향	11		
	환경적 영향	7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		5	리커트 5점 척도	남재경(2004) 오정학·윤유식(2009) 송성섭(2010)
태도		10	리커트 5점 척도	조명환, 양봉석(2004) 이후석(2004) 최영희 외2인(2005)
인구통계적 사항		4	명목척도	-

1) 관광영향 인식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관광영향 인식인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해 서 Ap& Crompton(1998), Perdue(1990), 송재호·고계성(2015), 송우진(2015), 이용학(2014), 강미경(2005), 강미경(2005), 김의근(2004), 김남조(2001), 고동완(2000)를 선행연구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표 3-2>와 같이 25개 측정 항목을 도출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2〉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측정 항목

요인명	측정항목		선행연구
경제적 영향	긍정적	지역경제 활성화	김영미·김미주·김성섭(2010), 박상규(2010), 이계희·지봉구(2011), 임화순·고계성(2012) 이용학(2014)
		주민의 고용증대	
		주민의 소득증대	
		지자체 소득증대	
		생활 윤택	
	부정적	물가 상승 과소비 증가	고동완·김현정(2003), 장미경(2005), 김영미·김미주·김성섭(2010), 이용학(2014)
사회·문화적 영향	긍정적	주민들의여가/레크레이션기회 확대	주성현·박상준·한상열(2007), 김영미·김미주·김성섭(2010), 이계희·지봉구(2011), 이용학(2014)
		관광객과 교류증진	
		- 지역 전통문화 증진	
		- 전시등 문화활동 촉진	
		- 공공서비스 개선	
		- 문화유산 관심 촉진	
		- 지역의 유적,유물 발굴 도움	
	부정적	- 범죄발생 증가	김영미·김미주·김성섭(2010) 윤철민·박창규·이충기(2012), 이용학(2014)
		- 교통문제 증가	
		- 미풍양속 저해	
		- 지역의 고유한 가치관 파괴	
환경적 영향	긍정적	- 생활환경 쾌적	김남조·조광익(2001), 고동완·김현정(2003), 김도희(2005), 장미경(2005) 박상규(2010), 이용학(2014)
		자원환경보존/지역의 이미지증가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 정비에 기여	
	부정적	지역적 특성과 경관 훼손	주성현·박상준·한상열(2007), 김영미·김미주·김성섭(2010), 박상규(2010), 이용학(2014)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일반 환경오염증가	

2) 개인적 연관성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남재경(2004), 오정학 · 윤유식(2009), 송상섭(2010)선행연구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표 3-3〉과 같이 5개 측정 항목을 도출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3〉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 측정항목

요인명	측정항목	선행연구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	문화유적와 거주지와 이격거리	남재경(2004), 오정학·윤유식(2009) 송성섭(2010)
	문화유적지로 인해 가족 및 친인척 고용기회의 경험	
	문화유적지로 인해 경제적 혜택 경험(요식·숙박업)	
	문화유적지로 인해 기반시설(도로확충 및 문화공간)	
	거주한 기간	

3) 지역주민의 태도

조명환·양봉석(2004), 최영희·이원철·이훈(2005), 이은경(2009), 장혜원(2013),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보고서(2013), 이용학(2014) 등의 선행연구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표 3-4〉와 같이 5개 측정 항목을 도출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4〉 지역주민의 태도 측정항목

요인명	측정항목	선행연구
지역주민의 태도	생활환경의 쾌적해짐	Fick & Ritchie(1991), Keogh & Stewart(2002), 조명환·양봉석(2004), 최영희·이원철·이훈(2005), 이은경(2009), 장혜원(2013), 문화재기본계획 수립보고서(2013), 이용학(2014)
	지자체의 관광정책 지지	
	관광지 개발 지지	
	관광지 유치를 위한 문화자원 보전에 참여	
	문화유적지와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광개발 지지	
	문화유적지에 대한 사전교육 필요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 프로그램 개발	

2. 표본추출

본 조사에서는 설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는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했다. 삼양동 지역주민 대상으로 60명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 후 조사결과 이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했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5인의 조사원이 설문지에 응답자에게 주고 응답자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표집방법은〈 표4-1〉을 참고하여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했고, 편의추출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9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9.8%이며 그중 결측지 56부를 제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343부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 자료 등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설문 측정항목은 먼저 인구 통계학적 특성 문항은 명목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우선 추출된 표본자료에 대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검증했다.

자료의 코딩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통계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요인분석은 통하여 하나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관측된 여러 개의 변수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져 많은 변수들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여 그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설문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고려하여 Cronbach의 알파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장호찬·이석호, 2011; 강동희, 2016). 측정항목은 정제하고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CA)과 지각회전(Varimax)법을 이용하여 일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측정항목은 분석에 제외하였다. 각 변수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별로 요인이름을 명명하였다. KMO-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여 요인의 표준형성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4단계 방법을 통해서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제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제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로 제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4단계는 제2단계에서 도출한 독립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 값과 제3단계에서 도출된 표준화회귀계수 값을 비교하

였다. 최종으로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은 각 단계에서 회귀관계는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2단계의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제3단계의 표준화회귀계수 값보다 클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 <표 4-10>에서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후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끝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의 전체설문은 표본을 대상으로 총 4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42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7.6%이며 그중 신뢰성이 낮은 8부와 일부 결측치가 있는 21부 등을 제외한 399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유효표본 399명에 대한 성별은 남성 224명(56.1%), 여성 175명(43.9%)으로 각각 구성되어 남성이 여성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은 60대 이상 86명(21.6%), 50대 104명(26.1%), 40대 86명(21.6%), 30대 70명(17.5%), 20대 53명(13.3%)순으로 각각 나타나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졸, 고졸이하 139(34.8%)비율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직업은 회사원이 131명(3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년 평균 가계소득은 2~3천만원 이상과 3~4천만원 미만 소득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거주기간은 15년 이상 129(32.3%)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와 같이 내용분석에 대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구 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성	224	56.1	년 가계 소득	2천만원 미만	84	21.1			
	여 성	175	43.9		2-3천만원 이상	109	27.3			
	소 계	399	100.0		3-4천만원 미만	105	26.3			
					4천만원 이상	99	24.8			
연령	20대	53	13.3	소 계	399	100.0	거주 기간	2년 미만	77	19.3
	30대	70	17.5					2-5년	76	19.0
	40대	86	21.6					6-10년	41	10.3
	50대	104	26.1					10-15년	76	19.0
	60대 이상	86	21.6					15년 이상	129	32.3
	소 계	399	100.0					소 계	399	100.0
학력	고졸이하	139	34.8	직업	회사원(공직작포함)	131	32.8			
	전문대졸	111	27.8			자영업	105	26.3		
	대졸	131	32.8			농·수·축산업	54	13.5		
	대학원 이상	16	4.0			학생	23	5.8		
	계	399	100.0			전업주부 및 기타	86	21.6		
						소 계	343	100.0		

제2절 요인별 기술통계량

1. 경제적 요인에 대한 통계량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각 측정항목은 경제1에서 경제7로 각각 명명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2> 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량

측정항목	척도화 접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경제1	1	109	27.3	2.560	1.257	1.580
	2	89	22.3			
	3	97	24.3			
	4	79	19.8			
	5	26	6.5			
경제2	1	54	13.5	3.020	1.2139	1.474
	2	85	21.3			
	3	109	27.3			
	4	107	26.3			
	5	45	11.3			
경제3	1	48	12.0	3.020	1.1930	1.423
	2	88	22.0			
	3	120	24.0			
	4	96	26.8			
	5	48	11.3			
경제4	1	46	11.5	3.073	1.1878	1.411
	2	82	20.5			
	3	117	29.3			
	4	107	26.8			
	5	48	12.0			
경제5	1	30	7.5	3.168	1.0943	1.197
	2	117	18.8			
	3	139	34.8			
	4	110	27.5			
	5	48	11.5			
경제6	1	85	21.3	2.615	1.1918	1.421
	2	107	26.8			
	3	112	28.0			
	4	70	17.5			
	5	25	6.3			
경제7	1	34	8.5	3.233	1.2174	1.482
	2	77	19.3			
	3	129	32.3			
	4	84	21.0			
	5	75	18.8			

2.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통계량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각 측정항목은 사회8에서 사회 14로 각각 명명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 사회·문화적 요인의 기술통계량

측정항목	척도화 점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사회8	1	49	12.3	2.898	1.1919	1.421
	2	112	28.0			
	3	111	27.8			
	4	90	22.5			
	5	37	9.3			
사회9	1	82	20.5	2.748	1.3031	1.698
	2	93	23.3			
	3	122	30.5			
	4	54	13.5			
	5	48	12.0			
사회10	1	51	12.8	2.858	1.1793	1.391
	2	103	25.8			
	3	137	34.3			
	4	75	18.8			
	5	33	8.3			
사회11	1	43	10.8	2.970	1.1990	1.438
	2	101	25.3			
	3	123	30.8			
	4	97	24.3			
	5	35	8.8			
사회12	1	33	8.3	2.855	1.1499	1.322
	2	138	34.5			
	3	115	28.8			
	4	89	22.3			
	5	24	6.0			
사회13	1	40	10.0	2.838	1.1681	1.365
	2	121	30.3			
	3	136	34.0			
	4	78	19.5			
	5	24	6.0			
사회14	1	36	9.0	2.978	1.2514	1.566
	2	109	27.3			
	3	138	34.5			
	4	71	17.8			
	5	45	11.3			

측정항목	척도화 점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사회15	1	109	27.3	3.328	1.4372	2.065
	2	89	22.3			
	3	97	24.3			
	4	79	19.8			
	5	26	6.5			
사회16	1	54	13.5	2.605	1.4948	2.235
	2	85	21.3			
	3	109	27.3			
	4	107	26.3			
	5	45	11.3			
사회17	1	48	12.0	3.370	1.3840	1.918
	2	88	22.0			
	3	120	24.0			
	4	96	26.8			
	5	48	11.3			
사회18	1	46	11.5	3.268	1.4547	2.116
	2	82	20.5			
	3	117	29.3			
	4	107	26.8			
	5	48	12.0			

3. 환경적 요인에 대한 통계량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각 측정항목은 환경 19에서 환경25로 각각 명명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4> 사회·문화적 요인의 기술통계량

측정항목	척도화 점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환경19	1	46	11.5	2.823	1.3787	1.901
	2	125	31.3			
	3	136	34.0			
	4	54	13.5			
	5	38	9.5			
환경20	1	55	13.8	2.745	1.3526	1.830
	2	107	26.8			
	3	160	40.0			
	4	56	14.0			
	5	21	5.3			
환경21	1	91	22.8	2.658	1.5251	2.326
	2	95	23.8			
	3	126	31.5			
	4	52	13.0			
	5	35	8.8			
환경22	1	103	25.8	2.643	1.5893	2.526
	2	90	22.5			
	3	103	25.8			
	4	72	18.0			
	5	31	7.8			
환경23	1	54	13.5	3.130	1.6123	2.600
	2	80	20.0			
	3	109	27.3			
	4	92	23.0			
	5	64	16.0			
환경24	1	58	14.5	3.125	1.6587	2.751
	2	72	18.0			
	3	123	30.8			
	4	75	18.8			
	5	71	17.8			
환경25	1	87	21.8	2.700	1.6873	2.847
	2	111	27.8			
	3	101	25.3			
	4	57	14.3			
	5	43	10.8			

4. 개인적 연관성 요인에 대한 통계량

개인적 연관성요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각 측정항목은 개인26에서 개인30으로 각각 명명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표 4-5> 개인적 연관성 요인의 기술통계량

측정항목	척도화 접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개인26	1	84	21.0	2.363	1.5336	2.352
	2	173	43.3			
	3	79	19.8			
	4	63	15.8			
개인27	1	7	1.8	3.755	1.3728	1.885
	2	28	7.0			
	3	58	14.5			
	4	292	73.0			
	5	14	3.5			
개인28	1	28	7.0	3.775	1.3744	1.889
	2	72	18.0			
	3	285	71.3			
	4	14	3.5			
	5	1	3			
개인29	1	21	5.3	3.675	1.5971	2.551
	2	35	8.8			
	3	64	16.0			
	4	237	59.3			
	5	42	10.5			
개인30	1	77	19.3	3.328	2.0410	4.166
	2	76	19.0			
	3	41	10.3			
	4	76	19.0			
	5	129	32.3			

5. 태도요인에 대한 통계량

태도 요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각 측정항목은 경제1에서 태도10로 각각 명명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4-6>와 같이 나타났다.

〈표 4-6〉 태도 요인의 기술통계량

측정항목	척도화 점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태도31	1	55	13.8	2.918	1.6726	2.798
	2	105	26.3			
	3	132	33.0			
	4	56	14.0			
	5	50	12.5			
태도32	1	72	18.0	2.630	1.6370	2.680
	2	119	29.8			
	3	142	35.5			
	4	41	10.3			
	5	25	6.3			
태도33	1	85	21.3	2.548	1.7117	2.930
	2	131	32.8			
	3	118	29.5			
	4	35	8.8			
	5	30	7.5			
태도34	1	97	24.3	2.485	1.7528	3.072
	2	126	31.5			
	3	115	28.8			
	4	34	8.5			
	5	27	6.8			
태도35	1	163	40.8	2.008	1.7146	2.940
	2	135	33.8			
	3	71	17.8			
	4	23	5.8			
	5	7	1.8			
태도36	1	194	38.5	2.128	1.7942	3.219
	2	119	29.8			
	3	86	21.5			
	4	30	7.5			
	5	10	2.5			
태도37	1	213	53.3	1.808	1.7912	3.208
	2	109	27.3			
	3	57	14.3			
	4	11	2.8			
	5	9	2.3			
태도38	1	234	58.5	1.708	1.8042	3.255
	2	100	25.0			
	3	49	12.3			
	4	11	2.8			
	5	5	1.3			
태도39	1	240	60.0	1.623	1.7981	3.233
	2	114	28.5			
	3	34	8.5			
	4	10	2.5			
	5	1	0.3			
태도40	1	238	59.5	1.688	1.8771	3.524
	2	97	24.3			
	3	51	12.8			
	4	10	2.5			
	5	3	0.8			

제3절 탐색적 요인분석

측도와 Barlett의 구형성검정치를 계산하고 표본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그 적합도 판단은 근사 카이스퀘어(Chi-square,) 값과 유의확률 ($p < .05$)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변수 내 측정항목들을 몇 개의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어 축소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CA)을 이용하여 고유값(eigen-value) 기준으로 1보다 큰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방식은 직각회전방식 중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그 값이 0.4이상이 되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6이상이면 되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정충영 · 최이규, 2011; 송지준, 2009) 변수와 요인 간 상관관계가 0.6이상이 되는 값을 사용하였다. 베리맥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이용하여 각 측정 항목별 공통성(communality)을 구하였고, 그 값은 0.5보다 큰 측정항목만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그 계수인 알파(α)값이 0.6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0.7 이상인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 0.8 이상인 경우 만족할 만 만한 수준, 0.8 이상인 경우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정충영 · 최이규, 2011).

요인분석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Kaiser-Meyer-Olkin(KMO) 척도와 Barlett의 구형성검정치를 계산하고 표본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KOM 표본적합도 검정의 척도는 0.7 이상이면 적당, 0.8이상이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하여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적합도 판단은 근사 카이스퀘어(Chi-square x) 값과 유의확률($p < .05$)을 기준을 하였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 영향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변수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4-7>와 같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부정적 요인 각각 4개(총21개)의 요인 중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요인 내 상관관계가 적어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저해하는 측정항목들은 제거하고 같은 요인으로 묶어내기 위하여 0.5 이상의 항목들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반(反) 사회·문화적 영향요인 등을 포함하여 4개의 성분으로 추출되었다.

첫째, 반(反)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은 7개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의 공통성은 .7 이상이고, 요인 적재량은 최저 .721에서 최고 .840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7개의 측정항목들은 하나의 차원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1이라 명명하였다. 고유 값은 8.059, 분산설명력은 36.634%이었고, 신뢰도 계수(α)는 .915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제적 영향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은 5개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요인의 공통성은 .6 이상이고, 요인 적재량은 최저 .679에서 최고 .882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 요인에 대한 5개의 측정항목들은 하나의 차원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1 명명하였다. 고유 값은 3.805, 분산설명력은 17.295%이었고, 신뢰도 계수(α)는 .897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문화적환경요인 대한 측정항목은 4개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요인의 공통성은 .7 이상이고, 요인 적재량은 최저 .732에서 최고 .820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5개의 측정항목들은 하나의 차원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3로 명명하였다. 고유 값은 1.811, 분산설명력은 15.409%이었고, 신뢰도 계수(α)는 .885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환경적 요인 대한 측정 항목은 4개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요인의 공통성은 .6 이상이고, 요인 적재량은 최저 .687에서 최고 .792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4개의 측정항목들은 하나의 차원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4로 명명하였다. 고유 값은 1.147, 분산설명력은 5.668%이었고, 신뢰도 계수(α)는 .880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주민 영향인식의 대한 전체 표본적합도 KMO 값이 .898로 나타나 변수 내 측정항목들의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artlett 구형성검정의 (α)값은 6098.614 유의확률은 .000($p < .001$)으로 나타나 표본은 요인분석에 적합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적 분산설명력은 69.332%로 나타났다. 탐색적 분석에

대한 요인 분석에 결과는 다음의 <표 4-7> 같다.

<표 4-7>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주민 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 No.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공통성	분산설명력 (%)	신뢰도계수 (a)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Q1	경제활성화		.819			.767	17.293	.897
Q2	주민의 고용증대(취업)		.882			.800		
Q3	주민의 소득증대		.877			.806		
Q4	지자체의 조세수입 증대		.825			.738		
Q5	생활의 질 향상		.679			.533		
Q8	주민들이 여가/레크레이션 기회			.684		.574	.9.736	.880
Q9	관광객들의 교류			.769		.727		
Q10	지역 전통문화에 도움			.809		.760		
Q11	문화활동이 촉진			.775		.730		
Q13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633		.590		
Q14	지역의 유적, 유물발굴 도움			.578.		.558	.5.668	.872
Q19	생활환경이 쾌적				.792	.709		
Q20	자연환경보존/이미지증가				.789	.734		
Q21	생활기반 시설확충				.782	.777		
Q22	도로확충 등 공공시설을 정비				.687	.695		
Q15	범죄발생 발생증가	.728				.565	.36.634	.915
Q16	교통문제 증가	.721				.585		
Q17	미풍양속 저해	.819				.716		
Q18	지역의 고유한 가치관 파괴	.781				.631		
Q23	지역적 특성과 경관훼손	.813				.775		
Q24	지역의 자연환경 파괴	.840				.786		
Q25	환경 오염 증가	.775				.697		
고유값		8.059	3.805	2.142	1.247			

총분산설명력(%) : 69.332

KMO = .898 $X^2=6098.614$ $df=231$ $sig.=.000$

2.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태도의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4-8>와 같다. 태도의 10개 항목을 갖고 태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한 결과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867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면 KMO(Kaiser-Meyer-Olkin)값이 0.1 이상이므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10개 측정 항목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80.032 %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에 대한 공통성을 살펴보면 모두 0.6이상으로 공통성에서도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4-8>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요인명	설문 No	측정항목	성분	공통성	분산설명력 (%)	신뢰도계수 (a)
			1			
태도	Q1	문화유적지 방문객 유치 홍보 적극 참여	.789	.622	80.320	.973
	Q2	지자체의 관광정책을 지지	.869	.755		
	Q3	관광지 개발	.873	.763		
	Q4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자원 보전 참여	.868	.754		
	Q5	문화유적지와 연계된 관광코스 다양화	.918	.843		
	Q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광개발 지지	.920	.847		
	Q7	문화유적지에 대한 사전 교육	.925	.856		
	Q8	문화유적지에 보전을 위한 정책	.933	.871		
	Q9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의견 수렴	.927	.860		
	Q10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 프로그램 개발	.929	.862		

총분산설명력(%) : 80.320

KMO= .947 $X^2=5628.771$ df=45 sig=.000

*** p<0.001

3.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태도의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4-9>와 같다. 개인적 연관성은 5개 항목을 갖고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0.7이 상으로 신뢰성이 양호한 것을 할 수 있

다. 또한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면 KMO(Kaiser-Meyer-Olkin)값이 0.1 이상 이므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5개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의 충분산설명력은 73.395%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에 대한 공통성을 살펴보면 모두 0.7이상으로 공통성에서도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4-9〉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요인명	설문 No	측정항목	성분	공통성	분산설명력 (%)	신뢰도계수 (a)
			1			
개인적 연관성	Q1	문화유적지와 이격거리	.741	.549	73.395	.915
	Q2	가족 및 친 인적 고용기회	.930	.865		
	Q3	경제적 혜택	.959	.919		
	Q4	지역의 혜택 받은 경험	.884	.782		
	Q5	거주기간	.745	.556		

충분산설명력(%) : 8.032
 KMO= .832 X²=1674.122 df=10 sig.=.000

*** p<0.001

제 4절 매개효과 검증과 가설검증

1.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개인적 연관성이 관광영향인식을 매개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4-10〉와 같이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적 연관성요인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의 유의성은 t값이 각각 .560, .539, .069, .553으로 .196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각각 .576, .590, .945, .581로 나타나 p<.005수준에서 선행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광영향인식은 개인적 연관성과 태도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0〉 관광영향인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분석 단계	종속 변수	분석 구분	독립 변수	표준화 계수 β	t	p	R ²	검증결과	
								인과관계	매개효과
1	경제적	단순회귀	개인적	.028	.560	.576	.001	N ^a	
2	태도	단순회귀	개인적	.017 ^{a1}	.345	.730	.000		
3	태도	다중회귀	개인적	.018 ^{a2}	.357	.722	.001		
			경제적	.022	.429	.668			
4		분석결과							N ^b
1	사회적	단순회귀	개인적	.027	.539	.590	.001	N ^a	
2	태도	단순회귀	개인적	.017 ^{b1}	.345	.730	.000		
3	태도	다중회귀	개인적	.021	.430	.667	.023		
			사회적	.150	3.02	.003			
4		분석결과							N ^b
1	환경적	단순회귀	개인적	.003	.069	.945	.000	N ^a	
2	태도	단순회귀	개인적	.017 ^{c1}	.345	.730	.000		
3	태도	다중회귀	개인적	.018	.381	.704	.084		
			환경적	.289	6.02	.000			
4		분석결과							
1	反사회·환경적	단순회귀	개인적	.028	.553	.581	.001	N ^a	
2	태도	단순회귀	개인적	.017 ^{d1}	.345	.730	.000		
3	태도	다중회귀	개인적	.019	.376	.707	.004		
			反사회·환경적	.057	1.13	.259			
4		분석결과							N ^b

Note1. * $p < .05$; ** $p < .001$; Y^a: 인과관계 유의; N^a: 인과관계 없음; Y^b: 매개관계 유의; N^b: 매개관계 없음; c:

Note2. 매개효과의 요건: 1단계-회귀관계 유의 & 2단계의 회귀계수 > 3단계의 회귀계수.

Note3. 개인적: 개인적 연관성, 경제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환경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反사회·환경적: 反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Note4. a: 경제적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β , b: 사회적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β , c: 환경적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β , d: 부정적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β

2. 가설H1 검증

가설 H1a: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11>과 같다. 분석결과 F값은 .034, sig.는 .854로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t값은 -.184, 유의수준은 .854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연관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H1a는 기각되었다.

<표 4-11> 가설H1a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수준	가설채택여부
		B	S.E.	β			
(상수)		2.989	.137		21.892	.000	
개인적 연관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007	.038	-.009	-.184	.854	기각

$R^2 = .000$, Adjusted $R^2 = -.002$, $F = .034$, sig. = .854

가설 H1b: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관광자원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12>와 같다. 분석결과 F값은 64.482, sig.는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력은 13.7%로 분석되었다. t값은 8.030, 유의수준은 .000으로 나타나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연관성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H1b는 채택되었다.

〈표 4-12〉 가설H1b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수준	가설채택여부
		B	S.E.	β			
(상수)		1.974	.122		16.245	.000	
개인적 연관성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269	.033	.373	8.030	.000***	채택

$R^2 = .139$, Adjusted $R^2 = .137$, $F = 64.482$, sig. = .000

*** $p < 0.001$

가설 H1c: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관광자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3〉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F값은 306.816, sig.는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력은 43.4%로 분석되었다. t값은 17.516, 유의수준은 .000으로 나타나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연관성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H1c는 채택되었다.

〈표 4-13〉 가설H1c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수준	가설채택여부
		B	S.E.	β			
(상수)		.639	.128		5.012	.000	
개인적 연관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615	.035	.660	17.516	.000***	채택

$R^2 = .435$, Adjusted $R^2 = .434$, $F = 306.816$, sig. = .000

*** $p < 0.001$

가설 H1d: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사회·환경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관광자원의 反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14>과 같다. 분석결과 F값은 .306, sig.는 .58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t값은 -.553, 유의수준은 .581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연관성과 反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H1d는 기각되었다.

<표 4-14> 가설H1d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수준	가설채택여부
		B	S.E.	β			
(상수)		3.201	.306		10.454	.000	
개인적 연관성	반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050	.091	-.028	-.553	.581	기각

$R^2 = .001$, Adjusted $R^2 = -.002$, $F = .306$, sig. = .581

3. 가설H2 검증

가설 H2검증 :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a: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인식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b: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인식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c: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적 인식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d: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反사회·환경적 인식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관광자원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15>과 같다. 분석결과 F값은 9.675, sig.는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명력은 8.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은 -1.284, 유의수준은 .200으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H2a는 기각되었다. 문화관광자원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은 1.348, 유의수준은 .178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H2b도 기각되었다.

문화관광자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이 5.161, 유의수준은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H2c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자원의 반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은 .357, 유의수준은 .722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H2d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문화관광자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및 반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H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4-15> 가설H2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수준	가설채택여부
		B	S.E.	β			
(상수)		1.452	.158		9.181	.000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태도	-.049	.038	-.072	-1.284	.200	기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태도	.062	.046	.081	1.348	.178	기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태도	.209	.041	.269	5.161	.000***	채택
반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태도	.013	.036	.018	.357	.722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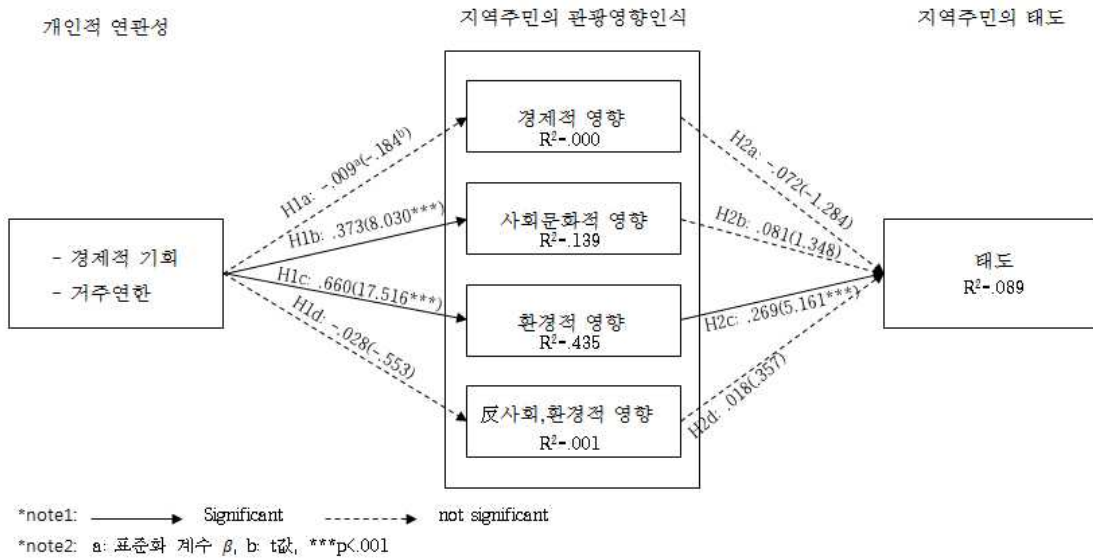
$R^2 = .089$, Adjusted $R^2 = .080$, $F = 9.675$, sig. = .000

*** $p < 0.001$

4. 가설검증결과의 요약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H1과 가설H2는 각각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가설검증 결과



5. 문화유적지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 두 집단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6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과 6년 미만 거주한 지역주민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은 <표 4-16>와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6>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두 집단)

요인	거주 기간	표본수	평균	S.E.	F값	sig.	t값	df	유의 수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3.0680	.984	.317	.574	1.605	397	.109
	6년 이상	246	2.9024	1.012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2.9499	.913	1.093	.296	1.596	397	.111
	6년 이상	246	2.8062	.849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2.6863	.896	.310	.578	.252	397	.801
	6년 이상	246	2.6636	.857					
反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3.1167	.953	.247	.619	1.408	397	.160
	6년 이상	246	2.9814	.921					

6. 문화유적지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 세 집단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6년 미만 거주한 지역주민과 6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지역주민 및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을 살펴보면 <표 4-17>와 같이 어느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7>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세 집단)

요인	거주 기간	표본수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값	sig.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집단 간	3.101	2	1.551	1.554	.215
	6~9년	41	집단 내	397.715	396	1.004		
	10년 이상	205	합계	400.816	398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집단 간	3.872	2	1.936	2.543	.080
	6~9년	41	집단 내	301.454	396	.761		
	10년 이상	205	합계	305.326	398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집단 간	2.061	2	1.030	1.360	.258
	6~9년	41	집단 내	300.031	396	.758		
	10년 이상	205	합계	302.091	398			
反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6년 미만	153	집단 간	3.998	2	1.999	2.305	.101
	6~9년	41	집단 내	343.498	396	.867		
	10년 이상	205	합계	347.496	398			

7. 문화유적지와 거주지 간 거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

문화유적지와 지역주민의 거주지 간 거리에 따라 관광영향인식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 간 거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을 살펴보면 <표 4-19>와 같이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거주지 간 거리에 따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F값이 3.529, 유의수준이 .015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유적지와 거주지 간 거리차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간 거리와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反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는 F값이 각각 1.781, 1.763, .558로 나타났고, 유의수준은 .150, .154, .643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세 요인들은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4-18〉 거주지 간 거리에 따른 관광영향인식 분산분석

요인		제곱합 (SS)	df	평균 제곱	F값	sig.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집단 간	10.464	3	3.488	3.529	.015*
	집단 내	390.353	395	.988		
	합계	400.816	398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집단 간	4.074	3	1.358	1.781	.150
	집단 내	301.252	395	.763		
	합계	305.326	398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집단 간	3.990	3	1.330	1.763	.154
	집단 내	298.101	395	.755		
	합계	302.091	398			
反사회·환 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집단 간	1.467	3	.489	.558	.643
	집단 내	346.030	395	.876		
	합계	347.496	398			

* p<0.05

제5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1) 가설검증의 요약

본 연구에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H1과 가설H2에서 각각 부분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종연구모델에 결과를 보면 [그림 4-1] 과 같이 분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의 유의성 검증을 토대로 변수, 요인 간 각각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H1a 검증결과는 기각되었다. 개인적 연관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유의수준은 .854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009이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설H1b 검증결과는 채택되었다. 유의수준은 .000으로 나타나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373이다 따라서 개인적 연관성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설H1c 검증결과는 채택되었다. 유의수준은 .000으로 나타나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660이다. 따라서 개인적 연관성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설H1d 검증결과는 기각되었다. 유의수준은 .581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028이다. 따라서 개인적 연관성과 반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가설H2 검증결과를 보면 문화관광자원인 문화유적지가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명력은 8.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은 -1.284, 유의수준은 .200으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072이다. 가설H2a는 기각되었다.

문화관광자원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은 1.348, 유의수준은 .178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081이다. 가설H2b도 기각되었다.

문화관광자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이 5.161, 유의수준은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269이다. 가설H2c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자원의 반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 관계는 t값은 .357, 유의수준은 .722로 나타나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018이다. 가설H2d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문화관광자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및 반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H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모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개인적 연관성이 관광영향인식을 매개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적 연관성요인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환경적 영향, 反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간의 유의성은 t값이 각각 .560, .539, .069, .553으로 .196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각각 .576, .590, .945, .581로 나타나 $p < .005$ 수준에서 선행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광영향인식은 개인적 연관성과 태도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문화유적지 지역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결과를 보면 먼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2집단, 3집단으로 구분하여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유적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고용기회와 경제적 혜택(요식·숙박업 등)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확인해 본 결과 문화유적지로 인한 고용기회와 경제적 혜택(요식·숙박업 등)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유적지와 지역주민의 거주지 간 거리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거주지 간 거리에 따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F값이 3.529 유의수준이 .015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유적지와 거주지 간 거리 차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거주지 간 거리와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反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수준은 .150, .154, .643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세 요인들은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문화유적지와 거주지 간 거리에 따른 지역주민과는 인식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석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삼양동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문화자원인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련 인식하고 있는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이 매개변수를 두어 태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가설을 설정한 후에 실증분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먼저 측정항목을 정제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PCA)과 지각회전(Varimax)법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후 본 연구모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을 알아보고자 특성 및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가설 채택 여부를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특성을 보면 총 399개의 유효표본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연령은 다른 연령대보다 50대가 높으며, 학력은 대졸, 고졸이하 비율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년 평균 가계소득은 3~4천만원 미만 소득자가 가장 높았다.

셋째, 지역주민이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부정적 요인 각각 4개(총21개)의 요인 중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요인 내 상관관계가 적어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저해하는 설문 Q6(물가상승으로 생활비용이 증가하였다), Q7(지역주민들의 과소비 경향을 가져오게 하였다), Q12(지역의 공공서비스가 개선되었다)은 측정항목들은 제거했으며 또한 같은 요인으로 묶어내기 위해 0.5 이상의 항목들만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영향 요인,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환경적 영향 요인, 反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등을 포함하여 4개의 성분으로 추출되었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反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은 7개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는데 反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은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제적 영향요인은 5개의 문항, 환경적 영향 요인은 4개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에 부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우선 개인적 연관성 요인의 매개변수를 두어 인과관계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제적 영향요인과 태도 간에는 개인적 연관성요인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요인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영향요인 환경적 영향요인 및 反사회·문화적 영향요인과 태도 간에는 개인적 연관성요인이 모두 매개변수로서 일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가설검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영향관계에 결과를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에 따른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가설검증에 설정하여 경제적 영향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환경적 영향 요인과 더불어 反사회·문화적 영향 요인과 변수와 요인 간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설정 에 대한 8개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검증한 결과 가설H1과 가설H2는 각각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H1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각 요인 간에 결과를 알아보려고 했다. 경제적 영향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에 수익창출에 효과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거나 개발 진행할 경우에 고용의 기회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 연관성과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삶의 질 개선과 주변 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환경이 쾌적함 등에 따르는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일부는 反사회·문화적 영향에 확인됨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경제적 영향 요인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환경적 영향 요인에 다차원적인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모델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개인적 연관성이 관광영향인식을 매개로 3단계로 걸쳐서 단순회계분석을 통하여 외생변수와 최종결과변수에 대한 매개변수를 측

정했다. 분석결과 관광영향인식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과 태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볼 때 개인적 연관성이 관광영향인식에 대한 매개의 효과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태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적지 지역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의 차이 검증결과를 보면 지역주민을 2집단, 3집단으로 구분하여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연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에 보면 거주연한에 따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유적지로 인해 고용기회와 경제적 혜택(요식·숙박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화유적지와 지역주민의 거주지 간 거리에 따라 관광 영향인식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주지와 거주지 간 거리차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는 인식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독립변수의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로 일부만 실제 생활에 연관된 경제적 영향에만 인식을 갖는 변수라는 것이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가설검증에 설정하여 경제적 영향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환경적 영향 요인과 더불어 반사회·문화적 영향 요인과 변수와 요인 간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각각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설H1에서 '개인적 연관성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적 영향요인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환경적 영향 요인에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에 수익창출에 효과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거나 개발 진행할 경우에 고용의 기회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가설H2 검증 결과에서 문화관광자원인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

도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제적 영향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및 환경적 영향 요인, 反사회·문화적 영향 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反사회·문화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 유의수준의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었으며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만 채택되었다. 주로 삼양동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적지와 무관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문화적 영향에도 인식이 낮다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관심이 미약하고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다는 것은 문화관광지로 인해서 일부 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시설의 정비와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지역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개인적 연관성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反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태도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보면 선행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는 없었다. 또한 거주 연한을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거리에 따라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인식에 대한 측정항목을 다양하게 도출하여 문화유적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개인소득이 증대와 고용 창출 기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개발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결과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서 삼양동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자원인 문화유적지가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지역주민들은 문화유적지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들 토지 및 부동산 문제 등 사생활 침해가 많다고 경제적 침체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지역단위라는 지역사회 틀 안에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 및 보존, 개발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관광활동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유적지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反사회·문화적 영향 요인에 매개변수를 두어 태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와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가설설정 후에 실증분석을 도출하여 목적을 수행하였다.

첫째, 문화유적지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 삼양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399개의 유효표본을 도출하여 측정항목을 정제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각각 명목적도를 위해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PCA)과 지각회전(Varimax)법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후 본 연구모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끝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를 총2개의 가설과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각각 4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가설검증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삼양동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399부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어 빈도분석, 측정항목을 정제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도출하였다.

가설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가설H1(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인적 연관성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가설H2(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 부분 채택되었다.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H1b(개인적 연관성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 가설H1c(환경적 영향) 검증결과는 채택되었다. 유의수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설H1a(개인적 연관성과 경제적 영향), 가설H1d(개인적 연관성과 반사회·환경적 영향) 검증결과는 기각되었다. 유의수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설H2 검증결과를 보면 문화관광자원인 문화유적지가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간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가설H2a(환경적 영향)는 유의 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태도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H2a(경제적 영향), 가설H2c(사회·문화적 영향), 가설H2d(반사회·환경적 영향)는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아 인식과 태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넷째, 관광영향인식인 개인적 연관성과 태도에 매개 영향이 있는지 검증결과를 보면 선형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문화유적지와 거주연한에 따른 2집단, 3집단을 구성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관광영향인식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거주간 거리차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만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화유적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고용기회와 경제적 혜택(요식·숙박업 등)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확인해 본 결과 문화유적지로 인한 고용기회와 경제적 혜택(요식·숙박업 등)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영향에 태도에 미치지 않았고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유적지와 관련된 직업이 없는 편이고 문화유적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적지로 인해 주변 환경이 기반시설과 쾌적함, 그리고 문화관련 서비스 등 지역에 대한 개발이 있을 때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반사회·문화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 유의수준의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었으며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만 채택되었다. 주로 삼양동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적지와 무관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문화적 영향에도 인식이 낮다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관심이 미약하고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다는 것은 문화관광지로 인해서 일부 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시설의 정비와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지역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에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체험교육 용도로서의 활용은 현재 기존의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동적 형태에서 직접 참여하는데 관심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으로 인해 일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해와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 후에 삼양동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임의 표본추출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여 지역주민에 연구의 객관성과 일반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심층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특성 내지 속성들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여 이해하고 습득하여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안 문제들을 설

득력 있게 전개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문화유적지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현황파악을 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문화유적지에 인식이 흐름을 파악하지 문화유적지에 정확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지 못한 점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여러 번 설문조사도 통해서 다각적으로 변수에 대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2)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가 삼양동 지역주민 대상으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문화유적지가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태도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했지만 체계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안문제점과 인식변화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제시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삼양동과 유사한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는 연천 전곡리는 문화유적지를 하나의 지속적인 지역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전곡리 유적을 확대하여 지역 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향후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 태도 연구가 관광개발이 계획단계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변하는지는 전무하다는 할 수가 있다.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지역주민의 태도변화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인 종단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의 현황 파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시설보다는 활용에 가치를 두고 외적 성장과 함께 내실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도 필요로 하며 이를 토대로 하는 지역 문화산업의 벨트화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동희(2016). 관광목적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지식 및 방문의도 간의 관계연구; 제주 바
운드 중국 잠재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강신겸(2001).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
논문
- 고동완(2001).인구 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인식이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강태원(2009).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 특성과 영향: 제주도 예래동 지역을 사례로, 경
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15-16.
- 고동완 · 김현정(2003). 지역사회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27(3), 139-161.
- 김경주(2009).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병섭(2012).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보
존 및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준식외 (2004). 『조직행동관리』, 대명.
- 고정숙(2009). 초등예비교사의 장소인식 변화: 화북마을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국사지리지학
회지』 제21권 제3호, 209-221.
- 김경호 · 고승익(2003). 『관광학원론』 103-105.
- 김남조(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이 태도,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9-68.
- 김미애(2001). 전남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미옥(2003). 관광지 이미지가 문화관광자원보전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사동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2-27.
- 김석출 · 최영희 · 김학군(2006).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 공무원의 관광영
향지각, 태도, 만족도 차이, 『관광연구』, 20(3):1-20.
- 김성민(2015).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광개발에 대한

- 인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홍운(2005). 문화유적을 관광하기 위한 모색, 특집 『문화관광의 시대를 연다』
- 김성진(2001).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주민 참여, 일신사, 262-263.
- 남재경(2004). 종로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노기창(2010).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시시를 중심으로.
- 넬넬윈(2011).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관광영향 인식,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미안마 인레 호수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18-26.
- 문순덕(2015). 정책이슈 브리프, 일본사례로 살펴본 제주의 지역문화 발전방안, V. 245.
- 문순덕 · 고희송(2010).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ii.
- 박광무(2013). 문화융성 시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9-71.
- 서일교 외(3인). (2007). 『관광과 건축』 74.
- 서용건 · 허향진 · 고광희 · 김용이(2005).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태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0(2), 267-283.
- 서태양(2002). 『문화관광론』 2판, 대왕사, 30-31.
- 손수진(2008). 청개천 도시수변공간의 이용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관광지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연구』 10(1).
- 송상섭(2010). 지역사회 애착, 관광영향인식과 내발적 지역관광개발 참여의사의 관계: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8-27.
- 송재호, 고계성(2015).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1), 39.
- 송우전, (2012). 컨베션센터 지역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장소애착심, 관광영향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2.
- 심진범(2008).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 저항 영향요인: 인천광역시 용유무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상운(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주민의 갈등지각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1-27.
- 오세탁(2008). 『문화재보호법원론』 주류성, 268-270.
- 오정학 · 윤유식(2009).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강원도 사례 중심으로.

- 이정규(1999). 문화관광객의 구매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0.
- 이진희(2006). 『장소마케팅』, 대명사, 176.
- 이은경(2009). 제주 지역주민의 의료관광 영향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43-63.
- 이석호 · 김성진 · 강신겸 · 홍정원(2011). 『지역관광론』 7장, 191.-198.
- 이후석(2014). 지역애착과 관광영향인식이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지지역부에 미치는 영향
- 이후석(2011). 지역주민의 지역애착 수준별 농촌 관광영향인식과 관광개발태도 관계분석, 『관광저널』, 5(5), 31-139.
- 이학식(2003). 『소비자행동』 (제3판), 서울: 범문사, 213-218.
- 이환봉(2007).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필수 · 고계성 · 임화순(2008). 지역주민의 골프장 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산업혁신연구』 24(2), 219-238.
- 양봉석, (2006). 문화관광지의 관광체험과고유성, 『관광만족의 관계연구』 12-14.
- 임기성(2013).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울산 일산유원지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9(20) 43-63.
- 임화순 · 고계성(2012).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태도 및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관광연구』 8(1), 123-139.
- 여경진·주영민(2016). 『관광과 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68.
- 여호근(1999). 관광태도결정이 지속가능한 관광지선택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1.
- 장미경(2005).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태도에 관한 연구; 중문 관광단지 인근 거주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38.-41.
- 장성수(2010). 관광자원개발 계획, 『관광학총론』 제26장, 한국관광학회, 백산출판사, 692.
- 장성수(2001). 문화관광자원의 개념과 지연성 척도,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한국관광학회 제50차 학술심포지움 및 정기학술발표대회, 11-19.
- 장혜원(2013). 문화관광자의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9.
- 전고필(1998). 광주·전남지역 문화관광원의 상품화방안에 관한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명숙(2006).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6(1), 94-102.

- 정호찬 · 리선아(2011). 『관광행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83.
- 제주관광대학 관광특화사업단, (2008). 『제주관광자원론』 8.
- 조명환 · 양봉석(2004). 문화관광지 개발에 대한 김해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관광태도, 관광 자원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6(2), 9-27.
- 조광익 · 김남조(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효과분석, 『관광학 연구』, 26(2):31-51.
- 최병길·송재호·김시영(2004).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 태도의 상관관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38-259.
- 최성일(2013). 지역문화재 가치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방안 연구: 홍천군 문화재를 중심으로, 108~133.
- 최영희 · 이원철 · 이훈(2005). 동굴관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영향요인: 지역애착과 태도이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4(1), 193-215.
- 최용복 · 부창산 · 김민철(2012). 도서 관광지의 선택속성, 서비스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 관계 연구: 추자도를 대상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4(3), 406-415.
- 최용복 · 부창산(2007).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13(2), 272.
- 최태현, (2003). 문화자원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문화자원 중심으로, 17-18.
- 채담(2006). 관광영향인식 및 태도가 개발유형에 미치는 영향: 무안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6-27.

2. 국외문헌

- Ap, J(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ravel Research*, 19(4), 665-690.
- Ap, j., & Crompton, J. L.(1998). Developing and Testing a Tourism Impac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20-130.
- Brougham J.E., & Butler, R.W. (1981). A segment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tudes to the social impact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7(4), 569-590.
- Tighe, J. A(1985). Cultural Tourism in the USA, *Tourism Management*, 6(4), p.234
- Lankford, S. V., & Howard, R.(1994). Developing a Tourism Impact Scale. *Annal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1), 121-139.
- Linderg, K., & Johnson, R. L.(1997). Modeling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arch*, 24(2), 402-427.
- Perdue, R., Long, P. T.. & Allen, L. R.(1990). Resident'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586-599.
- Ross, G. F.(1992). Resident perception of the impact of tourism on an Australian c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 13-17.
- Richards, G.(2001). The development tourism in Europe. G. Richards(Ed.), *Cultural attractions and European tourism*, New York: CABI publishing, 3-29.
- McIntosh, R. W., & Goldner, R.(1986).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New York: Wiley and Sons.: Richards, G(1966).op. cit.,22-23.
- Sofied, T. H. F. M. S.(1998). Tourism development and cultural policies in chin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5):362-392.
- Hsiaoa, T. Y., & Chuang, B.(2016). Components of cultural tourists' experiences in destinations. *Current Issues in Tourism Volume 19(2)*, 137-154.
- UNESCO(1997), *Culture, tourism, development: Crucial issu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26-27.

3. 기타자료

- 문화유적분포지도(2011). - 증보 제주도-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문화재청(2012).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pp.25-72
- 순천 월평유적(2014). 국가사적 지정 10주년 기념 한일국제학술대회
- 삼양동지(三養同誌);삼양 · 도련, (2008). 삼양동 편찬위원회
- 연천군(2006). 제14화 연천리 전곡리 구석기 축제 결과보고서.
- 연천군청. <http://www.iyc21.net/>
- 전곡리 선사박물관. <http://www.jgpm.or.kr/>
-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3).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4).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제주도Ⅱ 동(洞)지역, 19~7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조사, (국가사적 도지정문화재 등 포함)
- 제주 삼양동 유적. <http://culture.jeju.go.kr/>
-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제주삼양동유적: 제주도 삼양2동 삼양교회 증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3.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조사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모든 설문내용은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이나 설문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으로 처리되오며, 조사된 자료는 단순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 5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연구자 : 홍 순 옥

지도교수 : 최 용 복

010-8181-8966

(dasa188@hanmail.net /101 8181 8966)

※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삼양동 문화유적지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삼양동 문화유적지 분포 현황: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지석묘, 삼양 환해장성, 초가집, 무형문화재 등.

번호	항 목	그렇 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2	주민의 고용증대(취업)에 기여하였다.					
3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4	지자체의 조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다.					
5	전반적으로 생활이 윤택해 졌다.					
6	물가상승으로 생활비용이 증가하였다.					
7	지역주민들의 과소비 경향을 가져오게 하였다					

II. 삼양동 문화유적지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번호	항 목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8	주민들의 여가, 레크레이션 기회가 확대되었다.					
9	관광객들의 교류를 증진시켰다.					
10	지역 전통문화에 도움이 되었다.					
11	전시, 공연 등과 같은 문화활동을 촉진시켰다.					
12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개선되었다.					
13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4	지역의 유적, 유물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					
15	범죄발생을 증가시켰다.					
16	교통문제를 증가시켰다.					
17	미풍양속을 저해하였다.					
18	지역의 고유한 가치관이 파괴되었다.					

III. 삼양동 문화유적지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번호	항 목	그렇다	약간 그렇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9	생활환경이 쾌적해졌다.					
20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증가 시켰다.					
21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에 기여하였다.					
22	도로확충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데 기여하였다.					
23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훼손시켰다.					
24	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시켰다.					
25	지역 내 쓰레기, 소음,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을 증가시켰다.					

IV. 다음의 질문은 문화유적지와 개인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6. 문화유적지와 귀하의 거주지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 ① 1km 이하 ② 2~3km 정도 ③ 4~5km ④ 6km 이상

27. 문화유적지로 인해 가족 및 가까운 친척 고용의 기회를 가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어느정도 있다 ③ 없는 편이다 ④ 없다 ⑤ 잘모르겠다

28. 문화유적지로 인해 경제적 혜택(예: 요식·숙박업 잘된다 등)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어느정도 있다 ③ 없는 편이다. ④ 없다 ⑤ 잘모르겠다

29. 문화유적지로 인해 지역이 혜택(예: 도로확충 및 문화공간 등)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어느정도 있다 ③ 없는 편이다. ④ 없다 ⑤ 잘모르겠다

30. 삼양동에 거주한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

- ① 2년 미만 ② 2~5년 이하 ③ 6~10년 이하 ④ 10~15년 ⑤ 15년 이상

V.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번호	항 목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31	문화유적지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32	지자체의 관광정책을 지지한다.					
33	관광지로서 개발을 지지한다.					
34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자원의 보전에 참여한다.					
35	문화유적지와 연계된 관광코스가 다양화해야 한다.					
3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지지한다.					
37	문화유적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38	문화유적지에 보전을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					
39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0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VII.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항 목	
41	귀하의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 이상
42	귀하의 연령대는?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43	귀하의 년 가계소득은?	①2천만원미만 ②2-3천만원미만 ③3-4천만원 미만 ④4천만원 이상
44	귀하의 직업은?	①회사원(공직자포함) ②자영업 ③농·수·축산업 ④학생 ⑤전업주부 및 기타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Effect of Personal Relevance and Residents' Recognition toward Regional Cultural Resources on Attitude: Focused on the Residents of the Historical Sites in Samyang-dong Jeju si

By Soon Og Ho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in this study. First,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s personal relevance and the residents' recognition as well as their attitudes. Second,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s of mediation variables regarding personal relevance. Third,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f residents' recognition between residential groups by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such as a distance and term.

This study was carried with literature review, counselling by professors, quantitative approaches and empirical study. For the result of research, there has been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OVA, linear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for mediating effect and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o confirm the causal relationships.

The survey for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interviews as well a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in Samyang-dong, Jeju after completing pretest. Data for final analysis was collected from Samyang-dong residents. Among 450 questionnaires distributed randomly, 399 were finally used except some questionnaires with missing marking. SPSS 22.0 and excel program was used for analyzing data.

The research model was reliable and vali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linea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uggested that there was not a significance in mediating effect of residents' recognition mediating personal relevance and attitudes. The result of proposed model through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relevance and recognition was partially significant. Also the result showed tha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was partially significant. Lastly,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residential term in residents' recognition toward cultural heritage.

There are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personal relevance influenced on local residents' recognition socially, culturally and environmentally. This suggests that cultural heritage as a tourist spot is perceived to the local residents and plays a role in the local area or community. Second, residents' recognition was associated with attitude. Specially, it means that environment positively influences on attitude. The local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manage and conserve cultural heritages properly for the impact on the local residents.

Lastly limitations and future study was discussed.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to generalize the result of study due to the sampling method and survey scope. For the future studies, there should be longitudinal studies to follow up the local residents' recognition changes.